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정복

ETF 투자가
쉬워지는
실전 연습

실습문항 수록

—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 지음



일주일 동안 30개 질문으로 완성하는 ETF 실전 학습지

“읽고 끝나는 ETF 공부는 이제 그만,
질문하고 풀어보며, 실전에 적용하라!”

일주일
완성 학습지

30개
핵심 FAQ 수록

이론부터
실전 적용까지



ETF,
익숙한 투자수단이지만 제대로 고르는 법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지수를 따르는지,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나에게 맞는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ETF 완전정복」은
ETF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30개의 질문과 실습으로 익히는 학습지입니다.

ETF의 기본 구조부터 상품 비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학습하며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과 투자 체력을 길러보세요.

**더 잘 알고, 더 단단하게 투자하는 법.
삼성 Kodex ETF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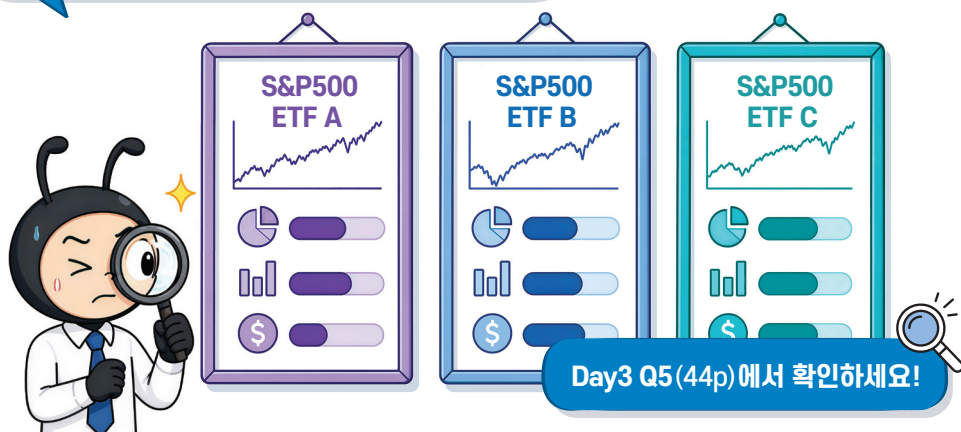
ETF 투자, 하다 보면 꼭 생기는 질문들!

30개의 FAQ로 해결책을 답았습니다.

Q1 장 시작하자마자 ETF를 사면
더 유리할까?



Q2 같은 기초지수지만 다양한 ETF,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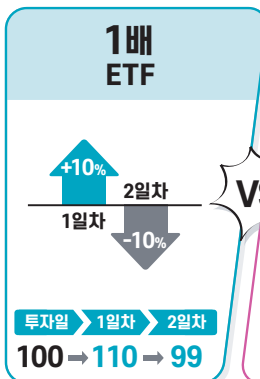


Q3 갑자기 생긴 목돈, ETF를 한 번에 살까? 나눠서 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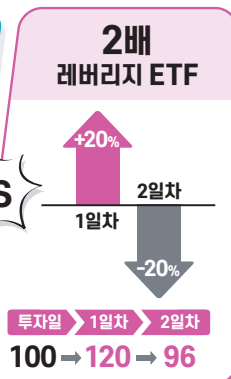


Day5 Q5(68p)에서 확인하세요!

Q4 레버리지 ETF 투자,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



VS



Day6 Q4(78p)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쓰는 책인가요?

ETF를 단순히 “좋은 상품 찾기”로 접근하면 끝이 없습니다.

ETF의 상품 특성을 이해하고, 내 투자목적에 맞는 ETF를 고르는 나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개의 FAQ를 학습하며 일주일 동안 ETF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아요.



01

**ETF의 구조와
거래 방식을 이해합니다.**

ETF가 무엇인지,
언제·어디서·
어떤 주문으로 사는지까지
ETF를 사고팔 때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니다.

02

**상품을 스스로
비교하고 고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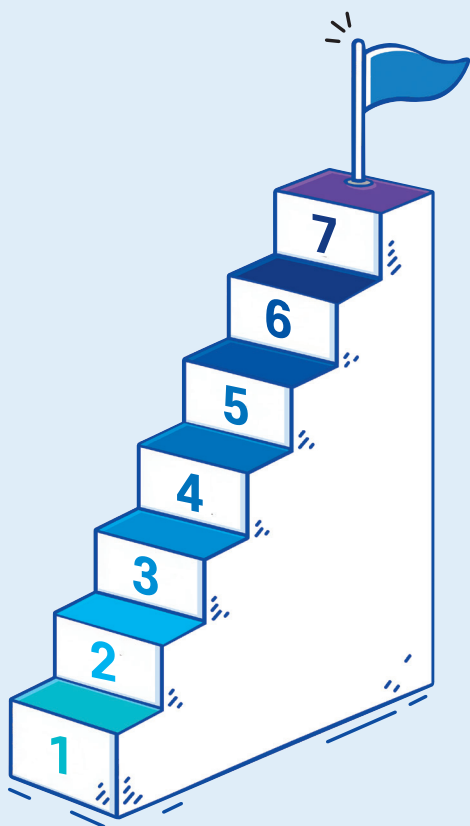
구성종목·비용·
상품구조를 읽고,
같은 선상에 놓인
ETF끼리 비교하는
순서를 익힙니다.

03

**나만의 ETF 투자
원칙을 세웁니다.**

자금 성격과
투자기간,
세금까지 반영해
사고파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주일 학습 로드맵



DAY

7

최종 점검 - 나의 ETF 투자 준비

체크리스트 · 핵심용어 15 · 나의 원칙

DAY

6

전략·세금·투자 원칙

기간·세금까지 반영해 원칙 세우기

DAY

5

투자목적에 맞춘 활용

내 목적과 자금을 맞게 활용하기

DAY

4

상품구조와 비교 기준

상품구조의 차이를 읽고 비교하기

DAY

3

ETF 속을 읽는 방법

바구니 안 구성종목을 들여다보기

DAY

2

가격·비용·분배와 첫 선택

제값에 사고 비용·분배를 확인하기

DAY

1

ETF의 기본 구조와 거래

ETF가 무엇이고 언제·어디서 사는지

☆ CONTENTS



DAY

10p

1

ETF의 기본 구조와 거래



- Q1** ETF란 무엇인가요?
- Q2** 길고 복잡한 ETF 이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Q3** ETF는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 Q4** ETF는 증권사에서만 살 수 있나요?
- Q5** ETF의 구성 종목은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DAY

46p

4

상품구조와 비교 기준

- Q1** 매달 분배금을 추구하는 ETF와 알아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 ETF, 어떻게 다를까요?
- Q2** 커버드콜 ETF의 높은 분배율,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 Q3** 채권형 ETF는 투자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Q4** ETF 이름 속 'H, 선물, 합성' 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 Q5** 비슷해 보이는 ETF, 똑똑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AY

58p

5

투자목적에 맞춘 활용



- Q1** 남들이 많이 사는 ETF, 그냥 따라 사도 될까요?
- Q2** ETF에 투자하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 Q3** 10년 이상 보유할 ETF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 Q4** 매달 현금이 필요하다면 어떤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 Q5**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 번에 사는 게 나을까요, 나눠 사는 게 나을까요?

심화학습

ETF를 단순히 “좋은 상품 찾기”로 접근하면 끝이 없습니다.
ETF의 상품 특성을 이해하고, 내 투자목적에 맞는 ETF를 고르는
나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DAY

22p

2

가격·비용·분배와 첫 선택

- Q1** ETF도 ‘제값’보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있나요?
- Q2** ETF를 고를 때,
총보수만 확인하면 되나요?
- Q3** ETF도 배당을 주나요?
- Q4** ETF가 상장폐지되면
나의 투자금도 사라질까요?
- Q5** ETF가 처음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초학습

DAY

34p

3

ETF 속을 읽는 방법



- Q1** ETF의 구성종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담고 바꾸나요?
- Q2** ETF를 처음 샀을 때와 구성종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지게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Q3** 편입종목 수가 많은 ETF일수록
분산이 정말 더 잘 된 걸까요?
- Q4**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 중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 Q5**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왜 1주당
가격이 다를까요? 싼 게 더 좋은 걸까요?

DAY

70p

6

전략·세금·투자 원칙

- Q1** ETF를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서 활용할 때,
ETF 활용법이 달라질까요?
- Q2** ETF 수익에 세금이 발생한다는데,
투자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Q3** 같은 해외지수 투자,
국내상장 ETF와 해외 직투는 무엇이 다를까요?
- Q4** 레버리지·인버스2x ETF는 일간 수익률 2배인가요,
아니면 투자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의 2배인가요?
- Q5**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나만의 ETF 투자원칙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DAY

82p

7

최종 점검 - 나의 ETF 투자 준비

- 최종점검 01**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10가지 질문
* 체크리스트 10
* 나의 투자 원칙 서식
- 최종점검 02** ETF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용어15
* 핵심용어 15
* 핵심용어 셀프 테스트



실전연습

0

DAY 1

2

ETF의 기본 구조와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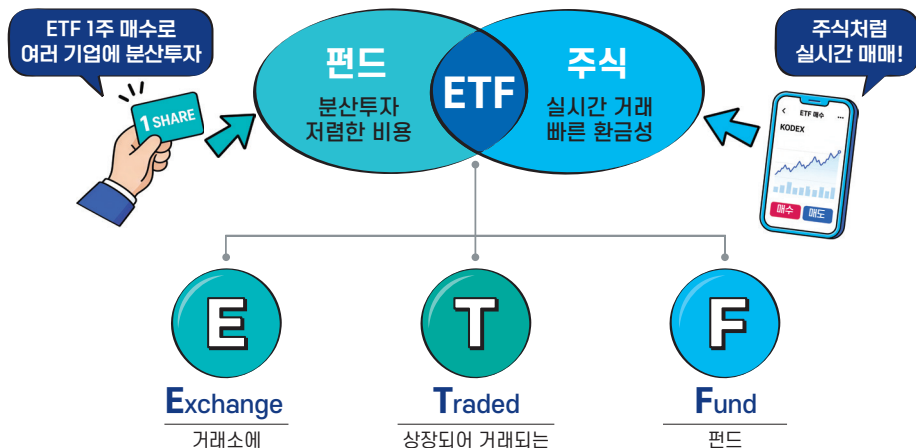
-
- Q1** ETF란 무엇인가요?
 - Q2** 길고 복잡한 ETF 이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Q3** ETF는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 Q4** ETF는 증권사에서만 살 수 있나요?
 - Q5** ETF의 구성 종목은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

ETF란 무엇인가요?

답변 요약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펀드이면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상장된 금융상품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식에 투자하면 수많은 기업 가운데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 기업에만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 변화가 투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ETF는 이러한 특정 개별 종목에 집중되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로는 상장지수펀드라고 부릅니다.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펀드와 비슷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장중에 가격을 확인하며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펀드처럼 하나의 ETF 바구니 안에 여러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ETF 한 주를 매수하면 그 안에 편입된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ETF라고 해서 항상 안전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TF 안에 담긴 자산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ETF 가격도 상승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ETF에 투자할 경우, 개별종목 하나가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함에 따라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목을 편입함에 따른 분산투자 효과로 개별종목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ETF(Exchange Traded Fund) 여러 자산을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분산투자

투자금을 여러 종목이나 자산에 나누어 특정 대상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 ET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다
- ②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할 수 있다
- ③ 하루에 한 번 정해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된다
- ④ 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2 ETF (Exchange Traded Fund)의 우리말 명칭을 쓰세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로는 라고 부릅니다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ETF(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제외)는 한 주만 사도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2) 분산투자를 하면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위험도 사라진다 ()

4 단어와 뜻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Exchange

Traded

Fund

㉠ 여러 종목을 묶어 함께 운용하는 투자상품

㉡ 국내외 증권거래소에서

㉢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되는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는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거래하는 상품입니다.
분산투자 효과가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길고 복잡한 ETF 이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답변 요약

ETF 이름은 ①브랜드→②투자 지역·자산→③기초지수→④H·액티브·선물·합성 등의 구조로 표기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TF를 검색하면 이름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ETF 이름에는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가 압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Kodex 미국S&P500은 Kodex라는 **운용사 브랜드**, 미국이라는 **투자 지역**, S&P500이라는 **기초지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뒤의 추가 표기도 중요합니다. H는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헤지형을 뜻합니다. 액티브는 운용역의 판단을 활용해 종목이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선물은 현물자산 대신 선물계약을 활용하고, 합성은 스왑 등의 계약을 이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는 ETF 이름을 통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위험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모든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명으로 1차 특징을 확인한 뒤 투자설명서와 최신 구성종목 자료에서 실제 투자대상과 운용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TF 종목명 이해하기]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S&P500 (H) ETF	
상성이 운용하는 ETF로,	미국대표 상위 500개 기업 으로 구성된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성이 운용하는 ETF로,	미국대표 상위 500개 기업 으로 구성된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 제거를 추구하는 ETF
Kodex 미국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			
상성이 운용하는 ETF로,	미국 대표 배당주식 에 주로 투자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여 옵션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종목이나 비중조절이 가능한 ETF

상품개요

Kodex 미국S&P500 ETF : 합성총보수 연 0.0738% (AP : 0.001%, 집합투자 : 0.0001%, 신탁 : 0.005%, 일반사무 : 0.0001%, 기타비용 : 0.0676%), 증권거래비용 0.0345% (직전 회계연도 기준),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Kodex 미국S&P500(H) ETF** : 합성총보수 연 0.1353% (AP : 0.001%, 집합투자 : 0.0009%, 신탁 : 0.005%, 일반사무 : 0.003%, 기타비용 : 0.1254%), 증권거래비용 0.0938% (직전 회계연도 기준), 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 합성총보수 연 0.2601% (AP : 0.001%, 집합투자 : 0.169%, 신탁 : 0.01%, 일반사무 : 0.01%, 기타비용 : 0.0701%), 증권거래비용 0.1774% (직전 회계연도 기준), 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Kodex 미국S&P500의 이름을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쓰세요

Kodex : _____ 미국 : _____ S&P500 : _____

2 ETF 이름 뒤에 붙는 (H)의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고위험(High risk) 상품이라는 표시
- ②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헤지형
- ③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 ④ 분배율이 높은 상품

3 이름 표기와 의미를 연결하세요

액티브

선물

합성

㉠ 현물자산 대신 선물계약을 활용

㉡ 스왑 등의 계약으로 목표수익률 추구

㉢ 운용역 판단으로 종목·비중 조정 가능

4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이름이 비슷한 ETF는 기초지수도 반드시 같다 ()
- (2) 이름만으로 상품의 모든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다 ()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 이름은 상품의 첫 번째 설명서입니다. 이름을 나누어 읽은 뒤
추가 표기의 의미를 투자설명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2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는 언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DAY-1
Q3
3/30

답변 요약

장중(09:00~15:30)에는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지만, LP들의 의무 호가제출 시간(09:10~15:20) 내에서 지정가 주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규시장 매매시간(09:00~15:30)에 거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주식과 달리 LP(Liquidity Provider)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적정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P가 정규시장 매매시간에 항상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9:00~9:10(개장 직후 약 10분 내외), 15:20~15:30(종시호가) 시점에는 LP의 호가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ETF를 주문(매수/매도)할 경우 LP들의 호가제출이 부족하여 ETF의 호가 간격이 넓거나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시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결가격을 관리하려면 시장가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 거래는 보통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가능해요!



주식 거래시간 안내

구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09:00 ~ 15:30 (6시간 30분)
시간 외 시장	장개시 전	08:00 ~ 09:00 (1시간) ¹⁾	08:00 ~ 09:00 (1시간) ¹⁾
	장종료 후	15:40 ~ 18:00 (2시간 20분)	15:30 ~ 18:00 (2시간 30분)

* 주1) 단, 장개시전 증가매매는 08:30 ~ 08:40 (10분)

[용어 해설]

단일가매매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은 뒤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시가와 종가를 정할 때 활용됩니다.

LP (Liquidity Provider)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ETF 거래를 지원하는 유동성공급자이며 보통 증권사를 의미합니다.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 제출하는 주문으로, 가격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국내 거래소 정규시장의 ETF 매매시간을 쓰세요

정답 : _____ ~ _____

2 LP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09:00~09:10 / 15:20~15:30
- ② 08:00~09:00 / 15:00~15:30
- ③ 09:00~09:30 / 14:50~15:00
- ④ 10:00~10:10 / 15:20~15:30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ETF는 시장이 열려 있으면 언제나 같은 조건으로 거래된다 ()
- (2) ETF를 주문할 때 시장가보다 지정가 주문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4 ETF의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해 원활한 가격 형성을 돕는 증권사의 역할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정답 : _____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전 호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정가를 활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3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는 증권사에서만 살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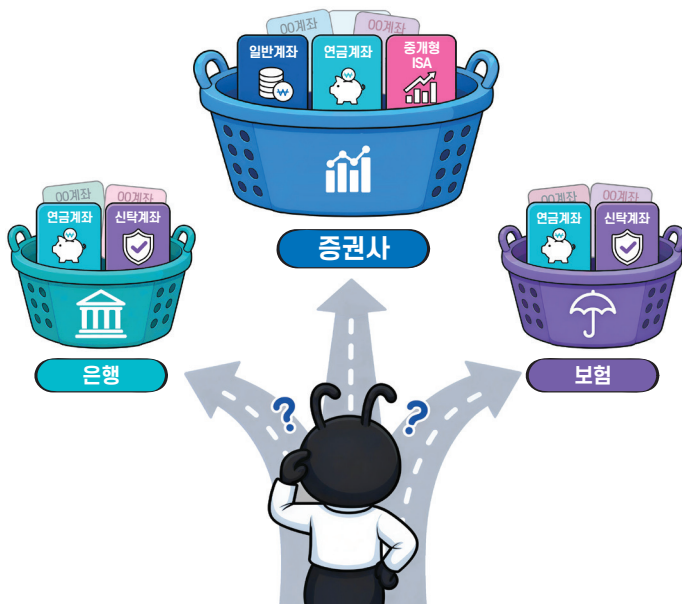
답변 요약

ETF를 직접 실시간 매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며, 은행·보험사에서도 연금, 신탁 등의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권사의 MTS나 HTS에서 ETF 이름 또는 종목코드를 검색한 뒤 일반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고, 한국거래소 기준 매매수량 단위는 1주입니다.

ETF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도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신탁 등의 상품 안에서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TF는 다양한 채널(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각 채널에서 제공하는 계좌별 특징(매매수수료율, 추가 보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MTS·HTS

MTS는 스마트폰, HTS는 PC에서 주식과 ETF를 조회하고 주문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입니다.

직접 매매

투자자가 증권계좌에서 ETF와 수량, 가격, 거래시점을 직접 정해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금융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1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국내 상장 ETF는 증권계좌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
- (2) 은행·보험사에서는 연금·신탁 등의 상품을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다 ()

2 한국거래소 기준 ETF의 매매수량 단위는 몇 주인가요?

정답 : _____ (주)

3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채널을 고를 때 함께 파악해야 할 계좌별 특징은?

- ① 매매수수료율과 추가 보수 발생 여부
- ② 지점의 위치와 영업시간
- ③ 앱 화면의 색상
- ④ 창구 직원 수

4 빈칸을 채우세요

증권사 계좌에서 ETF를 직접 사고파는 것을 매매라 하고,
, 에서는 연금· 등의 상품 안에서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 직접 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계좌를 이용합니다.
 다른 금융회사를 통할 때는 투자방식과 전체 비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4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의 구성 종목은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 요약

ETF는 주식·채권·원자재·통화·리츠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위험은 ETF에서 편입하고 있는 자산에서 결정됩니다.

ETF라고 하면 S&P500이나 KOSPI200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ETF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는 국내외 기업, 대표지수, 특정 산업이나 테마 등에 투자합니다. 채권형 ETF는 국채나 회사채를 담고 이자와 채권가격 변화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금·은·원유·구리 같은 원자재 ETF도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선물이나 관련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ETF는 특정 통화 가치의 변화에 투자하고, 리츠 ETF는 상장 리츠와 관련 기업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등을 함께 활용하는 혼합형 ETF도 있습니다.

결국 주식형은 기업과 시장, 채권형은 금리와 신용, 원자재형은 원자재가격과 선물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TF에 어떤 편입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ETF 유형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연결하세요

- | | | |
|------|---|-----------------|
| 주식형 | • | ㉠ 금리와 신용 |
| 채권형 | • | ㉡ 기업 실적과 시장 |
| 원자재형 | • | ㉢ 통화가치 |
| 통화형 | • | ㉣ 원자재 가격과 선물 구조 |

2 원자재 ET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원유 실물을 반드시 창고에 보관한다
- ② 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선물이나 관련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주식형 ETF와 위험 요인이 같다
- ④ 원자재 ETF는 원금이 보장된다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ETF는 주식으로만 구성된 상품이다 ()
- (2) 채권형 ETF에는 국채만 담을 수 있다 ()

4 주식과 채권 등을 함께 활용하는 ETF는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ETF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는 다양한 자산에 접근하는 수단입니다.

실제 투자대상과 가격을 움직이는 위험요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5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1

DAY 2

3

가격·비용·분배와 첫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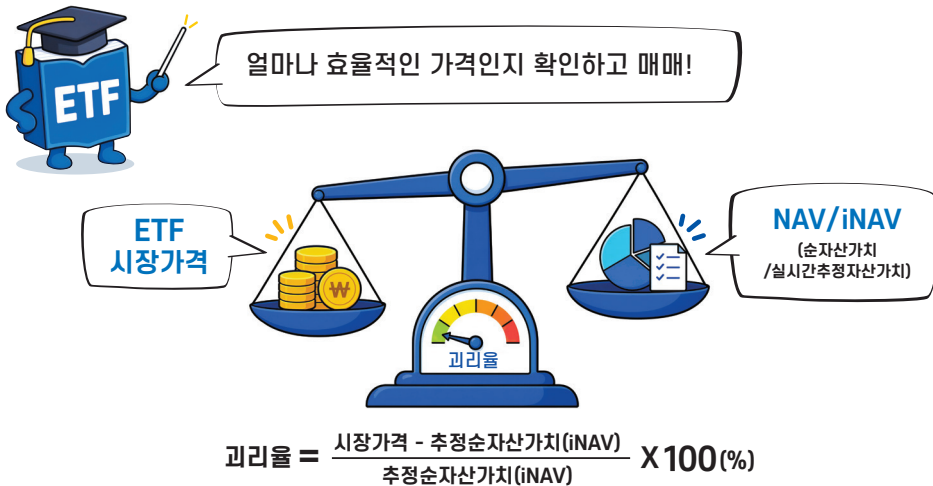
-
- Q1** ETF도 '저값'보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있나요?
 - Q2** ETF를 고를 때,
총보수만 확인하면 되나요?
 - Q3** ETF도 배당을 주나요?
 - Q4** ETF가 상장폐지되면
나의 투자금도 사라질까요?
 - Q5** ETF가 처음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ETF도 ‘제값’보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요약

ETF의 시장가격이 iNAV보다 높을 때 매수하면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ETF 가격은 ETF의 실질적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고파는 시장가격과, ETF가 보유한 자산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한 주당 가치로 산출한 추정 순자산가치(iNAV, Indicative Net Asset Value)의 차이를 알고 매매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가격은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해외시장 휴장으로 관련 자산의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과리율입니다. 과리율이 양수이면 시장가격이 iNAV보다 높은 상태(고평가), 음수이면 낮은 상태(저평가)를 뜻합니다. 한편, 해외자산 ETF의 iNAV는 시차로 인해 실제 거래 시점의 가치를 완벽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고평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문 전에는 현재가와 과리율, 그리고 매수·매도 호가의 간격과 잔량을 함께 살펴보세요. 시장가 주문은 호가가 부족할 때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으므로, 체결가격을 관리하려면 지정가 주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NAV·iNAV

NAV는 ETF의 한 주당 순자산가치이고, iNAV는 장중 자산가격을 반영해 계산한 추정 순자산가치입니다.

과리율(시장가격-iNAV)/iNAV×100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1 장중에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ETF의 추정 순자산가치를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_____

2 어느 ETF의 시장가격이 10,300원, iNAV가 10,000원일 때 아래를 답하세요

과리율 = (시장가격 - iNAV) ÷ iNAV × 100 = _____ %

상태 : (☐ 고평가 ☐ 저평가)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과리율이 양수이면 시장가격이 iNAV보다 높은 상태다 ()

(2) 해외자산 ETF의 iNAV는 실제 가치를 항상 정확히 보여준다 ()

4 과리율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 ①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몰릴 때
- ② 해외시장 휴장으로 자산 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 ③ 호가가 얇은 시간에 시장가로 주문할 때
- ④ 거래가 활발한 정규 장중에 지정가로 주문할 때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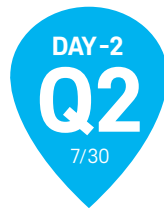
★ 오늘의 핵심포인트

현재가만 보고 주문하지 말고 iNAV, 과리율, 호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P가 있더라도 원하는 가격의 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6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를 고를 때, 총보수만 확인하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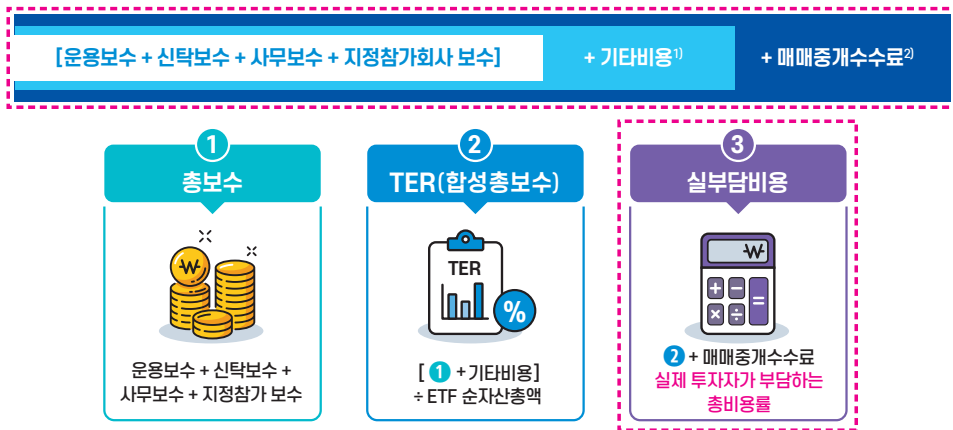
답변 요약

ETF의 실제 비용에는 총보수뿐 아니라 기타비용·매매비용·증권사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부담 비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의 총보수는 운용사, 신탁회사, 사무관리회사, 지정참가회사(AP)에 지급되는 보수의 합을 뜻합니다. 이 비용은 투자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ETF 자산에서 매일 조금씩 차감되어 ETF의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도 존재하는데, 총보수 외에 기타비용과 매매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품을 비교할 때는 총보수뿐 아니라 기타비용을 포함한 TER(Total Expense Ratio)과 TER에서 매매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한 실부담 비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오해 1 실비용은 따로 내는 것?

No! 펀드의 수익을 구성하는 요소!



오해 2 실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수수료?

No! 실비용은 ETF 수익률에 이미 반영!



TIP!

- 1) 기타비용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법률자문비용 등
- 2) 매매중개수수료 : 운용사가 주식을 주문할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개인 투자자가 ETF를 매수할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용어 해설]

총보수

운용·신탁·사무관리 등에 지급되는 기본 보수를 연간 비율로 표시한 값입니다.

TER(합성총보수)

총보수에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을 더해 보여주는 총비용 지표입니다.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부담비용

총보수와 기타비용, ETF 내부 매매비용 등을 종합해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 총보수를 지급받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윤용사 ② 신탁회사
③ 사무관리회사 ④ 한국거래소

2 비용 지표의 관계를 빈칸으로 완성하세요

TER = 총보수 +

--	--	--	--

실부담비용 = TER +

3 맞으면 0,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총보수는 ETF 자산에서 매일 조금씩 차감되어 순자산가치(NAV)에 반영된다 ()
- (2) 총보수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 비용을 알 수 있다 ()

4 비슷한 ETF를 비교할 때 총보수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 ① 기타비용을 포함한 TER과 매매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한 실부담비용
- ② 상장일
- ③ 종목코드
- ④ 운용사 설립연도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 비용은 총보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TER과 실부담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7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도 배당을 주나요?

DAY-2
Q3
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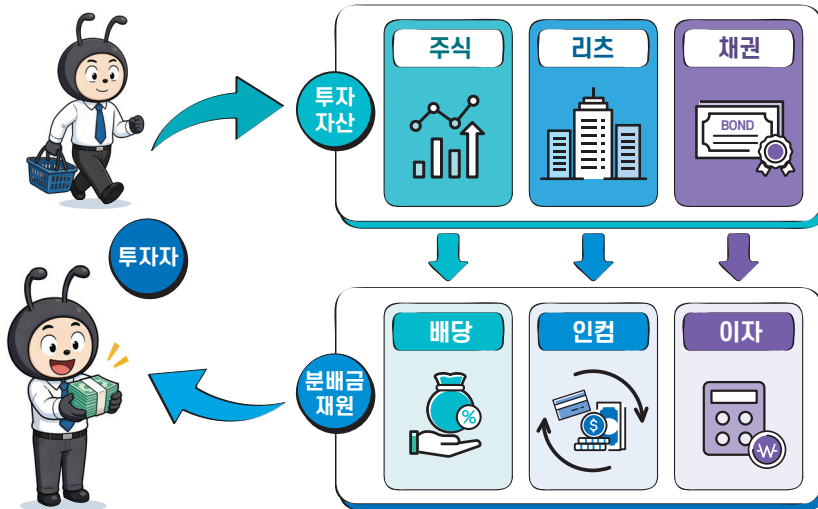
답변 요약

ETF도 배당과 이자 등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배금은 추가로 생기는 공짜 수익이 아닌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별 주식에서 받는 돈은 보통 배당금이라고 부르고, ETF에서 받는 돈은 분배금이라고 부릅니다. 주식형 ETF가 보유한 기업에서 배당을 받거나 채권형 ETF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ETF는 분배정책에 따라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마다 분배금을 추구하는 상품도 있고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분배금을 추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수준의 분배금이 매번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용 결과와 분배 가능한 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은 별도로 생기는 공짜 수익이 아닙니다. 분배금이 지급되면 그만큼 ETF의 순자산가치가 낮아지는 분배락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배율만 보고 성과를 판단하면 실제 투자 결과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와 받은 분배금을 합친 총수익률을 함께 봐야 하며, 세전 분배금과 세후 분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분배금 ETF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등의 재원을 투자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분배락 분배금 지급 권리가 확정된 뒤 그 금액 등을 반영해 ETF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입니다.

총수익률 ETF 가격 변화와 받은 분배금을 모두 합쳐 계산한 투자성과입니다.

1 ETF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정답 :

2 분배금 지급 후 그만큼 순자산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지급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매번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
- (2) 분배금은 별도로 생기는 공짜 수익이다 ()
- (3) 분배금에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

4 ETF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배율이 높은 순서
- ② 가격 변화와 분배금을 합친 총수익률
- ③ 최근 1개월 분배금 금액
- ④ 지급 횟수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분배금은 공짜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급액보다 분배 재원, 총수익률, 세후 현금흐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8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가 상장폐지되면 나의 투자금도 사라질까요?

DAY-2
Q4
9/30

답변 요약

ETF가 상장폐지되더라도 해당 시점의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만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 손실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ETF는 순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초지수와와의 상관계수 저하, 추종 지수가 없어지는 경우, 유동성 공급이나 계약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ETF의 상장폐지는 개별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ETF 안에 실제 보유자산이 남아 있다면 운용사는 이를 매도하거나 계약을 정산하고, 비용 등을 뺀 잔여재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장폐지가 곧 전액손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 시점까지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산이나 파생계약을 활용하는 상품은 정리 과정에서 환율과 거래비용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순자산 규모, 거래량, 공시, 운용사의 안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관련 위험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전



ETF 상장
폐지 확정



홈페이지에
상장폐지 이유와
시점 공시



상장폐지 시점
전 영업일까지
매도 가능



상장 폐지 후



잔여재산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단, ETF 안에 실제 보유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매도하고
계약 및 비용 정산 후 잔여재산에 관해 투자자에게 지급

[용어 해설]

상장폐지

ETF가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파산이나 전액손실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청산

ETF의 보유자산과 계약을 정리하고 비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잔여재산

ETF의 자산에서 부채와 청산비용 등을 제외한 뒤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1 ETF의 상장폐지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순자산 규모가 기준에 미달
- ②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저하
- ③ 추종하던 지수의 산출 중단
- ④ 분배금 지급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ETF 상장폐지는 곧 투자금 전액 손실을 뜻한다 ()
- (2) 보유자산을 정산해 비용을 뺀 잔여재산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
- (3) 청산 시점까지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3 상장폐지 위험을 점검할 때 확인할 지표 두 가지를 쓰세요.

정답 : , , 공시, 운용사의 안내 등

4 ETF 상장폐지가 개별 기업의 파산과 다른 이유는?

- ① ETF는 거래소가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
- ② ETF 안에 실제 보유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
- ③ 운용사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
- ④ 상장폐지 전 반드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 상장폐지는 전액손실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산가격, 거래제한과 정산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9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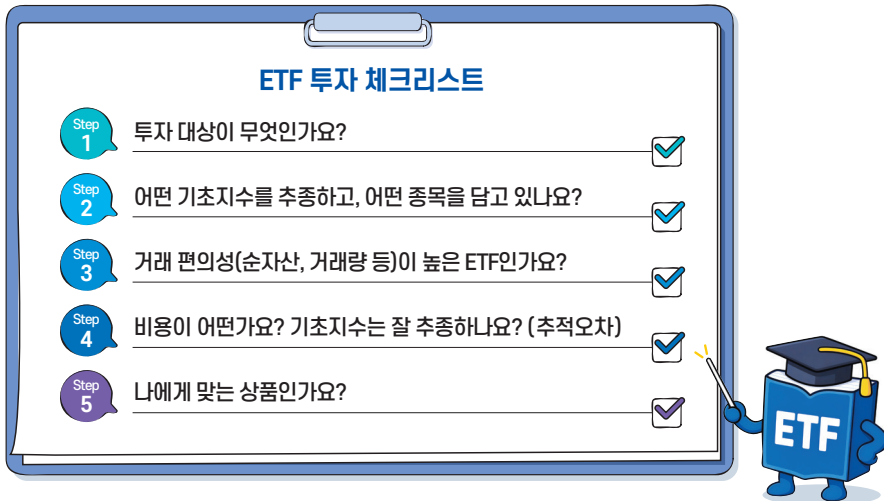
ETF가 처음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요약

최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대상과 기초지수를 먼저 보고, 구성종목·구조·비용·거래조건 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ETF를 고를 때 최근 수익률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많이 오른 상품이 앞으로도 같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투자목적에 먼저 생각한 뒤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이 ETF가 무엇에 투자하는지입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처럼 투자 대상이 달라지면 수익과 위험을 만드는 요인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기초지수와 상위 구성종목을 봐야 합니다. 상품명이 비슷해도 종목 선정 규칙과 비중이 다를 수 있고, 여러 ETF를 보유해도 실제 종목이 겹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자산총액 규모와 거래량, 호가 스프레드를 확인하면 거래 편의성을 가능하게 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총보수, 실부담비용, 괴리율, 추적오차 등도 비교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상품이 좋은가'가 아니라 '내 투자목적과 기간에 맞는가'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손실이 났을 때 유지할 기준이 없다면, 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기초지수

ETF가 어떤 시장이나 전략을 따라가도록 설계됐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추적오차

ETF의 일간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ETF의 일간 수익률이 기초지수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자산총액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전체 규모로, 상품의 운용 규모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입니다.

1 본문이 제시한 확인 순서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 ① 최근 1년 수익률
- ② 이 ETF가 무엇에 투자하는지(투자 대상)
- ③ 1주 가격이 싼지
- ④ 상장일

2 확인 항목과 알 수 있는 정보를 연결하세요.

순자산·거래량·스프레드

총보수·실부담비용

과리율·추적오차

㉠ 비용 부담

㉡ 거래 편의성

㉢ 가격·운용의 관리 상태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과거에 많이 오른 상품은 앞으로도 같은 성과를 낸다 ()

(2) 마지막 질문은 '이 상품이 좋은가'가 아니라 '내 목적과 기간에 맞는가'이다 ()

4 ETF 수익률이 기초지수 수익률과 얼마나 다르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정답 :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 선택은 수익률 순위표가 아니라 투자대상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투자대상, 기초지수뿐 아니라 거래 편의성, 비용, 운용 품질 등도 비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10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2

DAY 3

4

ETF 속을 읽는 방법



-
- Q1** ETF의 구성종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담고 바꾸나요?
 - Q2** ETF를 처음 샀을 때와 구성종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지게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Q3** 편입종목 수가 많은 ETF일수록
분산이 정말 더 잘 된 걸까요?
 - Q4**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 중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 Q5**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왜 1주당
가격이 다를까요? 싼 게 더 좋은 걸까요?
-

ETF의 구성종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담고 바꾸나요?

답변 요약

패시브 ETF의 종목 선정 및 변경은 주로 지수 방법론으로 결정되고, 액티브 ETF는 운용역의 판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ETF 안의 종목을 운용사가 마음대로 담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의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수를 만드는 지수사업자가 시가총액, 거래량, 업종, 재무요건, 테마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몇 % 담을지 미리 정해둡니다(=지수 방법론). 비중 규칙도 지수마다 달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많이 담기도 하고(=시가총액 가중), 모든 종목을 똑같이 담기도 합니다(=동일가중). 운용사는 이 지수와 비슷한 성과가 나도록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현하는 역할로, 전 종목을 담기도 하고 거래비용 및 유동성을 고려해 일부만 담기도 합니다. 교체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연 1~4회 정기변경일에 편입·편출과 비중 조정이 이뤄지고, 상장폐지나 인수합병 같은 사건이 생기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 대신 성과를 비교하는 비교지수를 두고, 비교지수와 70% 이상의 성과 유사성(상관관계 0.7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보다 나은 성과를 목표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ETF라도 추종하는 기초지수(액티브 ETF의 경우 비교지수)의 지수방법론이 다르다면 종목 수, 상위종목, 쏠림 정도가 달라지므로 투자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패시브 ETF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간다

지수와 똑같이

추적오차

상대적으로 낮음



예측 가능성과 비교적 낮은 비용을 원한다면

VS



목표



확인할 지표



비용

액티브 ETF

운용역 판단으로 지수와 다르게 간다



지수보다 더 높은 성과추구

초과성과 여부

상대적으로 높음



운용역의 판단에 기대를 건다면

[용어 해설]

지수 방법론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담고 비중을 정하며 언제 교체할지를 정리한 지수의 규칙입니다.

복제방법

ETF가 기초지수와 비슷한 성과를 내도록 실제 종목이나 파생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액티브 ETF

운용역의 판단을 활용해 비교지수와 다른 종목이나 비중으로 운용할 수 있는 ETF입니다.

1 지수 산출기관이 종목 선정 기준을 미리 공개해 둔 규칙 문서를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지수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패시브 ETF의 종목은 운용사가 인기 종목을 임의로 골라 담는다 ()
 (2) 같은 테마 이름이라도 사용하는 지수가 다르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

3 운용역이 지수의 일부 종목만 담아 비슷한 움직임을 추구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수익률을 지수보다 높이기 위해
 ② 거래비용과 유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③ 특정 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④ 분배금을 늘리기 위해

4 액티브 ETF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초지수를 오차 없이 복제한다
 ② 비교지수를 두되 운용역이 종목·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종목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④ 보수가 항상 패시브보다 낮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의 실제 모습은 상품명보다 지수 방법론과 구성종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테마라도 지수 방법론이 다르면 투자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1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를 처음 샀을 때와 구성종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지게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DAY-3

Q2

12/30

답변 요약

패시브 ETF의 구성종목은 기초지수의 정기변경·기업행사·비중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액티브 ETF의 구성종목은 운용역 판단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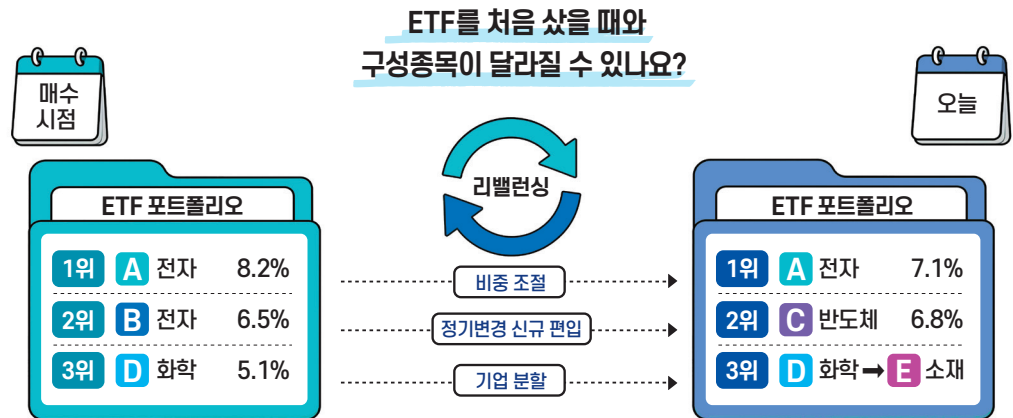
ETF를 한 번 사면 같은 종목을 계속 들고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패시브 ETF가 따르는 기초지수는 보통 정해진 주기마다 구성종목을 다시 심사해, 편입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새로 담고 조건에서 벗어난 기업은 떨어냅니다. 이를 정기변경 또는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둘째, 지수 방법론이 바뀌거나 담고 있던 종목에 합병·분할·상장폐지 같은 기업행사가 생기면 정기 일정과 관계없이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구성종목이 같아도 주가가 움직이면 비중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지수 규칙에 따라 목표비중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 달성을 위해 운용역의 판단으로 종목과 비중이 더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목 교체는 ETF가 시장 변화를 스스로 반영하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매매비용과 편입·편출 시점의 가격 변화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정기변경

지수 규칙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편입종목과 비중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편입·편출

새로운 종목이 지수에 들어오거나 기존 종목이 지수에서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리밸런싱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구성종목이나 자산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1 기초지수가 정해진 주기에 구성종목을 다시 심사해 교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또는 리밸런싱)

2 정기 일정과 관계없이 구성종목이 바뀔 수 있는 경우는?

- ① 투자자가 매도했을 때
- ② 편입 기업의 합병·분할·상장폐지 등 기업행사가 발생했을 때
- ③ 분배금이 지급됐을 때
- ④ 거래량이 늘었을 때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ETF를 한 번 사면 구성종목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
- (2) 종목 교체 과정에서는 매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4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상장 당시의 자료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
- (2) 최신 구성종목과 지수 변경 공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ETF는 고정된 바구니가 아닙니다. 기초지수 규칙과 시장 변화에 따라 구성종목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2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편입종목 수가 많은 ETF일수록 분산이 정말 더 잘 된 걸까요?

DAY-3

Q3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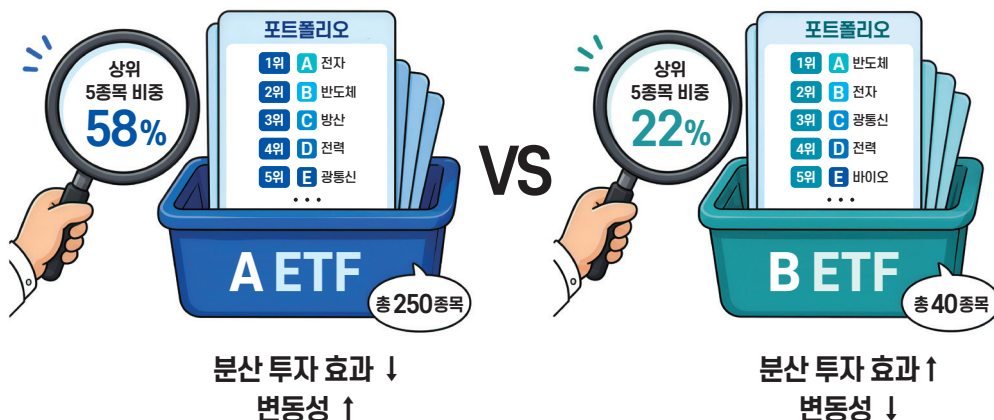
답변 요약

종목 수가 많다고 무조건 분산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산 수준은 종목 수가 아니라 상위종목 비중과 산업·국가 집중도가 좌우합니다.

ETF에 500종목이 담겨 있으면 10종목이 담겨있는 ETF보다 무조건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종목 수가 많으면 한 기업의 악재가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대표지수형 ETF가 장기 핵심자산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면 테마형 ETF는 특정 산업의 소수 기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산업이 성장할 땐 상승 탄력이 크지만 반대 상황에선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종목 수만 세어서는 실제 분산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0종목을 담아도 상위 5종목의 비중이 매우 높거나 모두 같은 산업에 속하면 위험이 한쪽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ETF를 여러 개 보유해도 같은 대형주가 반복 편입돼 있어 종목 간 움직임이 비슷하다면, 실질적인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종목 수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상위 종목의 합산 비중이며, 여기에 산업·국가 분포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위 종목 투자 비중에 따른 분산 투자 효과와 변동성



[용어 해설]

집중도

특정 종목·산업·국가에 투자비중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상관관계

두 자산의 가격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분산투자

종목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자산에 나누어 투자한 상태를 뜻합니다.

1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종목 수가 많으면 무조건 잘 분산된 것이다 ()
 (2) 이름이 다른 ETF라도 같은 대형주가 겹쳐 있을 수 있다 ()

2 100종목을 담았는데도 분산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는?

- ① 상위 종목의 비중이 매우 높을 때
 ② 종목이 여러 산업에 고르게 퍼져 있을 때
 ③ 국가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때
 ④ 편입 종목이 자주 공시될 때

3 종목 수를 세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 상위종목의 비중

4 테마형 ETF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항상 대표지수형보다 안전하다
 ② 산업 성장 시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으나 반대면 변동성도 커진다
 ③ 구성종목이 수백 개다
 ④ 원금이 보장된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종목 수는 분산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위종목 비중과 산업·국가의 쏠림까지 확인**해야 실제 위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3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액티브 ETF와 패시브 ETF 중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DAY-3

Q4

1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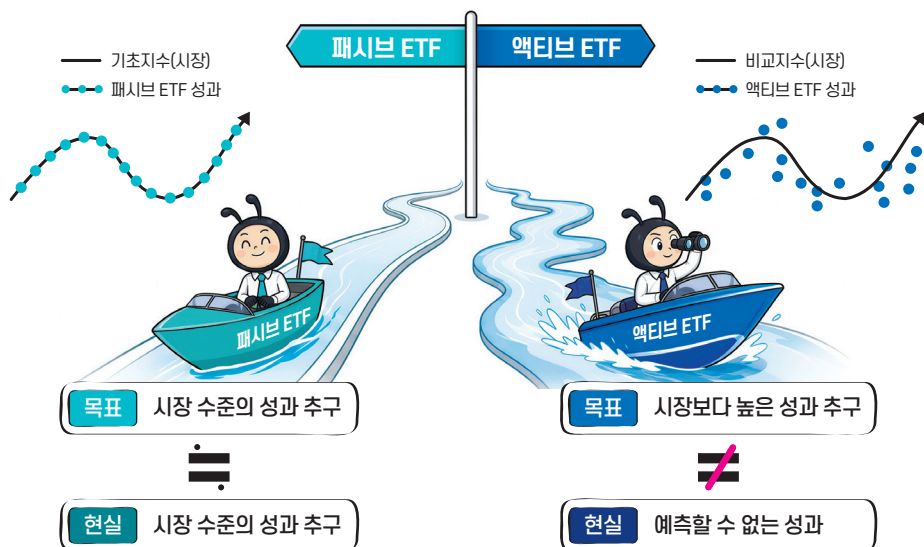
답변 요약

항상 우월한 방식은 없습니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성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쉽고 비용도 대체로 비교적 낮지만, 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은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즉 추적오차입니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두되 운용역이 시장 전망과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합니다.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하지만, 초과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 판단이 틀릴 수 있고 비용도 비교적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률만 보기보다 어떤 전략으로 차이를 만드는지, 비용을 감안한 뒤에도 그 성과가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늘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예측 가능성과 비교적 낮은 비용을 원하는지, 운용 재량에 기대를 거는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용어 해설]

패시브 ETF

정해진 기초지수와 비슷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ETF입니다.

액티브 ETF

운용역의 판단으로 종목과 비중을 조정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ETF입니다.

초과성과

ETF 수익률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지수 수익률을 뺀 값입니다. 과거 초과성과가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 방식과 특징을 연결하세요

패시브

액티브

㉠ 운용역 재량으로 초과성과 추구, 보수 높은 편

㉡ 지수 추종, 규칙 확인 쉽고 보수 낮은 편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액티브 ETF는 초과성과가 보장된다 ()

(2) 패시브 ETF는 지수가 하락하면 함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

3 액티브 ETF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기준은?

- ㉠ 최근 1개월 수익률
- ㉡ 비용을 감안한 뒤에도 비교지수 대비 성과가 지속됐는지
- ㉢ 상품명이 얼마나 유명한지
- ㉣ 분배금 지급 횟수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패시브는 지수를 잘 따라가는지가 중요하고 액티브는 운용 판단이 비용을 감안하고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4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왜 1주당 가격이 다를까요? 싼 게 더 좋은 걸까요?

답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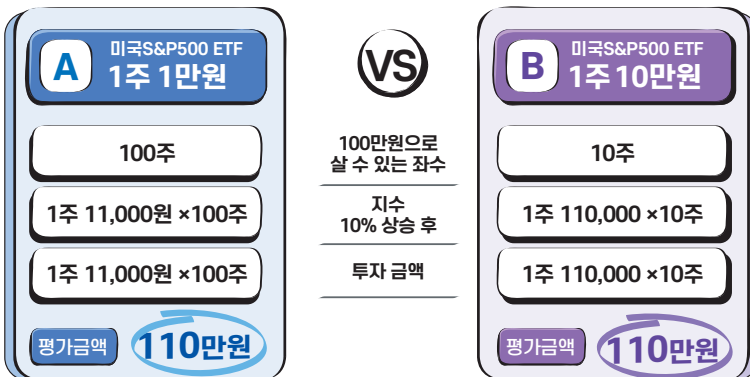
지금의 1주당 가격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상장시점의 기준가격과 상장 시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싸다고 더 좋은 ETF는 아니며, 운용성과·보수·추적오차·과리율·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같은 S&P500 지수를 따라가는데도 어떤 ETF는 1만원대, 어떤 ETF는 몇만원대에 거래됩니다. 이때 가격이 낮은 쪽이 더 싸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ETF의 절대가격은 저평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1주 가격이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로 상장할 때 1주를 얼마로 시작할지에 따라 다르고, 둘째로 상장 시점이 다르면 그 이후 쌓인 수익률만큼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간다면 출발 가격이 얼마든 수익률은 유사합니다. 1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ETF가 같은 지수를 추종할 때 지수가 10% 오르면, 두 상품 모두 약 10% 상승을 추구합니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결과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낮으면 소액으로 나눠 사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건 편의의 문제일 뿐, 수익률과는 무관하며, ETF의 과거 운용성과, 운용보수, 추적오차, 과리율, 거래량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투자원금 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TIP!

ETF의 가격은 수익률과는 무관하며, ETF의 과거 운용성과, 운용보수, 추적오차, 과리율, 거래량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좌수

ETF가 발행되어 거래되는 수량 단위입니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한 주 단위로 거래합니다.

추적오차

ETF(상장지수펀드)가 자신이 복사하겠다고 목표한 '기초지수'를 얼마나 똑같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하며, 0%에 가까울수록 기초지수와와의 움직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1주 가격이 낮은 ETF는 저평가된 상품이다 ()
 (2) 같은 지수를 정확히 따라간다면 1주 가격이 달라도 수익률은 비슷하게 추구된다 ()

2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1만원 ETF와 10만원 ETF가 있습니다. 지수가 10% 오르면 각각의 기대 수익률은?

1만원 ETF : 약 _____ % 10만원 ETF : 약 _____ %

3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1주 가격이 다른 이유가 맞는 것은?

- ① 상장당시 정한 가격과 상장시점의 차이
 ② 발행된 좌수의 차이
 ③ 한쪽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
 ④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

4 1주 가격 대신 비교해야 할 항목을 두 가지 이상 쓰세요

정답 : _____ , _____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한 주 가격이 낮다는 것은 저평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ETF는 절대가격보다 수익률과 상품구조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5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3

DAY 4

5

상품구조와 비교 기준



-
- Q1** 매달 분배금을 추구하는 ETF와
알아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 ETF,
어떻게 다를까요?
 - Q2** 커버드콜 ETF의 높은 분배율,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 Q3** 채권형 ETF는 투자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Q4** ETF 이름 속 'H, 선물, 합성' 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 Q5** 비슷해 보이는 ETF,
똑똑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달 분배금을 추구하는 ETF와 알아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Total Return) ETF, 어떻게 다를까요?

답변 요약

분배형은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재투자형(TR)은 분배금 재투자자를 통한 수익률 상승을 추구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TF의 분배정책은 일반적으로 연 1회 이상 분배를 실시함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월분배 ETF는 분배 가능한 재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추구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분배를 추구하는 ETF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을 포함한 수익을 ETF 안에서 재투자하는 재투자형(TR) 구조도 있습니다.

다만 '월배당, 월분배'라는 표현이 매월 같은 금액이나 일정한 분배율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 배당, 채권 이자, 옵션 프리미엄 등 실제 분배 자원과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할 수 있고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을 지급하면 ETF 자산이 그만큼 줄어 기준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주 받는다고 전체수익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금분배가 없다고 수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투자된 수익이 기준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월분배 여부는 상품의 투자대상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현금을 나누어 주는 일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매월 현금흐름을 추구한다면 월배당 ETF를 선택하지만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낮은 투자자라면 총수익률을 기준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총수익률은 FunET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TF평가금액 □ 받은 현금



분배형
현금 지급

107만원

3만원



TR형
재투자

110만원



주의!

100만원 투자 후 같은 수익이 났을 때,
분배형은 3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만큼 평가금액이 줄어드지만,
두 경우 모두 세전 총수익 금액은 **1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FUNETF
바라가기 링크!



[용어 해설]

분배형 ETF

분배 가능한 배당·이자 등을 정해진 주기에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TR(Total Return) 지수

배당 등을 다시 투자한다고 가정해 계산하는 총수익지수입니다.

분배정책

분배 가능한 재원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정한 상품의 방침입니다.

1 분배 방식과 특징을 연결하세요.

월분배형

TR형

㉠ 분배 없이 재투자

㉡ 분배 가능한 재원을 매월 지급 추구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월배당'은 매달 같은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

(2) 현금분배가 없다고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

3 TR형 ETF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월 현금이 들어온다
- ② 재투자된 수익이 기준가격에 반영된다
- ③ 분배락이 매월 발생한다
- ④ 원금이 보장된다

4 빈칸을 채우세요.

매월 현금흐름을 추구한다면 ETF를 선택하고,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낮은 투자자라면 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KOSPI 200 지수, KOSPI 200 TR 지수의 배당금 내역, 지수성과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비교해보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분배주는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을 전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분배율보다 분배재원과 총수익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16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커버드콜 ETF의 높은 분배율,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답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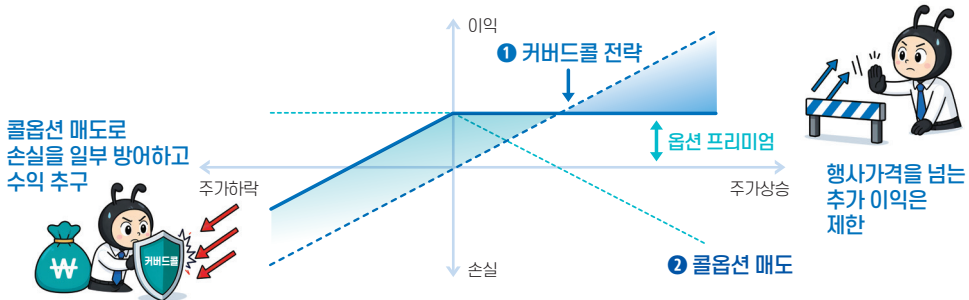
커버드콜의 높은 분배율은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에서 대부분 발생하지만, 콜옵션 매도로 인해 상승참여가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콜옵션을 산 사람에게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프리미엄에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까지 더해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형·채권형 ETF보다 높은 분배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짜로 얻는 수익은 아닙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면 넘겨준 권리 때문에 상승분 일부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면 받은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하락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상승 여력의 일부를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것과 맞바꾸는 전략인 셈입니다.

한편 커버드콜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목표 분배율에 맞춰 콜옵션을 매도하는 타겟 커버드콜, 콜옵션 매도비중이 고정된 고정 커버드콜, 매니저의 판단으로 콜옵션 매도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 커버드콜 등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목표분배율이 보장수익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옵션을 어느 정도 비율로 매도하는지, 추가 흐름 참여가 얼마나 제한될 수 있는지, 분배율을 포함한 총수익률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커버드콜이라도 매도 비율과 주기, 행사 가격이 달라 추가 흐름 참여 정도가 다르므로, 상품명이나 목표분배율만 보고 같은 전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 ※ 주가 상승 시 수익 일부를 옵션 프리미엄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먼슬리옵션은 데일리옵션 대비 잔존만기가 길어 시간가치가 더 커, 동일하게 1회 매도 시 높은 프리미엄을 활용한 운용 추구 가능
- ※ 기초자산 상승 시 수익 상방이 제한되고,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 하방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 확대 가능
-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콜옵션

정해진 기간 안에 기초자산을 약속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로, 콜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

옵션을 산 사람이 권리를 얻는 대가로, 옵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행사가격

옵션에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미리 정한 가격입니다.

1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무엇을 매도하나요?

정답 :

2 콜옵션을 판 대가로 받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목표분배율은 보장수익률이다 ()
 (2) 시장이 크게 오르면 상승분 일부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
 (3) 받은 프리미엄은 하락을 완전히 막아준다 ()

4 커버드콜 전략의 종류와 특징을 연결하세요.

타겟 커버드콜

고정 커버드콜

액티브 커버드콜

- ㉠ 콜옵션 매도비중이 고정되어 있음
- ㉡ 매니저 판단으로 매도비중을 조절
- ㉢ 목표 분배율을 받기 위해 옵션을 매도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자세한 상품정보는 부록(88p) 참고

커버드콜 전략의 대표 ETF인 **Kodex 200타겟워클리커버드콜 ETF**,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가 **Kodex 200 ETF**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커버드콜의 높은 분배율은 옵션 프리미엄과 상승수익 일부를 교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분배율이 높다고 총수익률도 높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7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채권형 ETF는 투자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DAY-4
Q3
18/30

답변 요약

채권 ETF는 금리와 금리 변화에 따른 민감도 지표인 듀레이션,
그리고 투자 대상(국채·회사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금리가 높다고 생각되거나 주식형 ETF 투자가 부담이라면, 채권형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형 ETF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형 ETF 투자 시에는 세부 채권 관련 지표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리 수준과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민감도인 듀레이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채 ETF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금리는 낮지만 듀레이션이 짧아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채 ETF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금리는 높지만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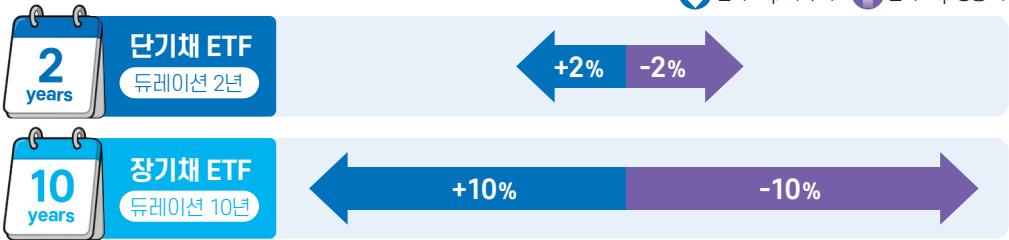
다음으로 발행주체를 봐야 합니다. 국채는 정부가,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므로 일반적으로 국채 대비 회사채에는 더 높은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도나 등급 하락 위험도 커집니다.

만기매칭형 ETF는 목표 시점에 맞춰 채권 만기를 구성하지만, 중간에 매도하면 시장가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금리 수준과 듀레이션을 살펴본 다음,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ETF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듀레이션에 따라 금리가 1%p 움직이면 가격은 얼마나 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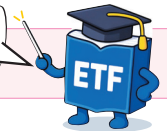
↓ 금리 1%p 하락 시 ↑ 금리 1%p 상승 시



확인!

상기 듀레이션은 ETF의 듀레이션이 아닌,
ETF 내 편입 중인 채권 자산의 듀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예민합니다.



[용어 해설]

듀레이션

시장금리가 변할 때 채권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지를 가능하는 지표입니다.

예시 금리 상승 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대비 듀레이션이 긴 채권가격의 하락폭이 더 큼.(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임)

신용등급

채권 발행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능력을 평가한 등급입니다.

만기매칭형 ETF

비슷한 시기에 만기가 오는 채권을 담아 목표 만기 시점을 제시하는 ETF입니다.

1 금리가 변할 때 채권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지를 가늠하는 지표는?

정답 :

2 가까운 시일에 쓸 자금으로 검토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은?

- ① 장기채 ETF ② 단기채 ETF
- ③ 레버리지 ETF ④ 테마형 주식 ETF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채권 ETF는 원금이 보장된다 ()
- (2)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자는 높지만 부도·등급 하락 위험도 커질 수 있다 ()

4 만기매칭형 ET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언제 팔아도 손실이 없다
- ② 목표 시점에 맞춰 채권 만기를 구성하지만 중간에 매도하면 손실이 날 수 있다
- ③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 ④ 금리와 무관하게 움직인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채권 ETF 선택은 금리 전망보다 **자금 사용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만기, 듀레이션, 신용등급 등을 자신의 손실 감내도에 맞춰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18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 이름 속 ‘H, 선물, 합성’ 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답변 요약

‘H, 선물, 합성’ 등은 환율·롤오버·거래상대방 위험 등 ETF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TF 구조에 대한 표기입니다.

ETF 이름 뒤의 표기는 ETF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H’는 환헤지를 뜻하며 해외자산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환율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헤지 비용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환율 영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물’ ETF는 주식이나 원자재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선물계약을 활용합니다. 선물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계약으로 교체하는 롤오버가 필요하며, 계약 간 가격 차이 때문에 현물가격과 ETF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성’ ETF는 주로 금융회사와 스왑 계약을 맺어 목표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과 스왑 비용·담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지수가 동일하더라도 H·선물·합성 구조로 운용되는 ETF는 일반 현물 ETF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환헤지(H)

환율 변화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롤오버

만기가 다가온 선물계약을 정리하고 다음 만기의 계약으로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계약 간 가격 차이가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왑

두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수익률이나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1 표기와 관련된 위험·특징을 연결하세요.

- | | | |
|-----|---|-----------------------|
| (H) | • | ㉠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못 지킬 위험 |
| 선물 | • | ㉡ 헤지 비용과 오차 |
| 합성 | • | ㉢ 롤오버에 따른 성과 차이 |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H)가 붙으면 환율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다 ()
- (2) 선물형은 현물가격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

3 선물 만기가 다가올 때 다음 계약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4 합성형 ETF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왑 거래상대방·비용·담보 정보
- ② 실물 창고의 위치
- ③ 배당 지급 요일
- ④ 종목코드 끝자리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H, 선물, 합성’ 등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수익률과 위험을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하기 전 해당 내용을 꼭 먼저 이해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각 ETF의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19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 보세요!

완료
체크

비슷해 보이는 ETF, 똑똑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AY-4
Q5
20/30

답변 요약

ETF 비교는 투자대상과 기초지수를 먼저 맞춘 뒤 구성종목·구조·비용·추적오차·운용성과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TF를 비교할 땐 가장 먼저 투자대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대상이 다른 국내주식·해외주식·채권·원자재 ETF는 수익을 만드는 원리와 위험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지수 방법론과 구성종목, 상위종목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시브·액티브, 현물·선물·합성, 환헤지 여부처럼 운용방식과 상품구조입니다. 네 번째로 분배정책을 봅니다. 월분배, 재투자, 커버드콜은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과 총수익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먼저 확인한 후, 비슷한 상품끼리 총보수와 실부담비용, 추적오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규모, 거래량, 호가 스프레드와 괴리율,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동일 기초지수 추종 여부, 운용방식을 확인한 후에 수익률이 더 좋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ETF 비교를 해보고 싶다면 FunETF 홈페이지의 ETF 비교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Step

투자대상이 같은가?

✓

국내주식·해외주식·채권·원자재는 수익 원리와 위험이 달라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Step

기초지수가 같은가?

✓

이름이 비슷해도 지수 방법론과 상위종목 비중이 다릅니다.

Step

구조와 분배정책이 같은가?

✓

패시브·액티브, 현물·선물·합성, 환헤지 여부/월분배·재투자·커버드콜

Step

비용과 추적오차는 어떤가?

✓

총보수, 실부담비용, 추적오차 / 순자산 규모, 거래량, 호가 스프레드, 괴리율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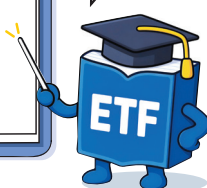
수익률은 어떠한가?

✓

앞의 조건이 맞춰진 상품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FUNETF에서
비교해보세요!



[용어 해설]

추적오차

ETF(상장지수펀드)가 자신이 복사하겠다고 목표한 '기초지수'를 얼마나 똑같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말하며, 0%에 가까울수록 기초지수와의 움직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리율

ETF 시장가격과 한 주당 순자산가치 사이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1 ETF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맞춰야 할 것은?

- ① 총보수
- ② 최근 수익률
- ③ 투자대상
- ④ 1주 가격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보수와 수익률부터 비교하면 성격이 다른 상품을 잘못 비교할 수 있다 ()
- (2) 분배정책은 비교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

3 ETF를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기초지수
- ② 운용방식·상품구조(현물·선물·합성, 환해지)
- ③ 분배정책
- ④ 1주 가격

4 실제 매매 편의성을 판단할 때 확인하는 지표를 두 가지 이상 쓰세요

정답 : _____ , _____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같은 목적과 구조의 ETF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투자대상과 기초지수를 맞춘 뒤 비용과 거래조건을 보는 순서를 지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20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4

DAY 5

6

투자목적에 맞춘 활용



Q1 남들이 많이 사는 ETF, 그냥 따라 사도 될까요?

Q2 ETF에 투자하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Q3 10년 이상 보유할 ETF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Q4 매달 현금이 필요하다면
어떤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Q5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 번에 사는 게 나을까요, 나눠 사는 게 나을까요?

남들이 많이 사는 ETF, 그냥 따라 사도 될까요?

DAY-5

Q1

21/30

답변 요약

자신의 목적과 위험 수준을 반드시 먼저 고려하세요!
인기 있는 ETF라도 나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ETF를 보면 검증된 상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순자산이 크면 매매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거나 상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FOMO로 인해 뚜렷한 목표 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ETF를 활용하는 경우, 최근 많이 오른 테마에는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을 수 있고, 유행이 바뀌면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단기매매 목적으로 샀지만 나는 10년간 보유하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 목적과 기간이 다른데 같은 ETF도 적합성이 달라집니다.

인기 순위는 참고자료일 뿐, 무엇을 담는지, 상위종목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와 종목이 겹치지는 않는지 풀림 위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사기 전에 '왜 사는지, 얼마나 보유할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감당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FOMO(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의 수익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투자하는 심리입니다.

풀림 위험

투자금이 특정 종목이나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해당 대상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위험입니다.

1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거래량과 순자산이 크면 매매 편의를 가능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2)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한다 ()

2 ETF를 투자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투자목적
 ② 보유기간
 ③ 위험성향
 ④ 투자 인플루언서 추천

3 따라 하기 전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세 가지를 쓰세요

왜 , 얼마나 , 어느 정도 까지 감당할지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인기는 ‘무엇을 더 확인할지’를 알려주는 신호이지 매수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투자계획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21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에 투자하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DAY-5
Q2
22/30

답변 요약

원금 손실 최소화를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기대한다면,
금리형/머니마켓 ETF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상자금, 가까운 시일에 낼 전세금이나 학비처럼 반드시 정해진 금액이 필요한 돈은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필요할 때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손실 발생 시,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면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주식형 ETF, 시장금리 및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채권형 ETF는 적절한 선택지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형 및 채권형 ETF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으며, 원금보장형 상품 대비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금리형 ETF나 비교적 듀레이션이 짧은 머니마켓 ETF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크!

위 내용은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투자 위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용어 해설]

금리위험

시장금리가 변하면서 채권이나 채권 ETF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신용위험

채권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1 손실 가능성 최소화를 추구하고 싶을 때 적절한 투자 대상은?

- ① 레버리지 ETF ② 테마형 주식 ETF
- ③ 금리형 ETF·머니마켓 ETF ④ 장기채 ETF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금리형·머니마켓 ETF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된다 ()
- (2)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손실 후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다 ()

3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커지는 문제는?

- ① 손실 후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하다
- ② 세금이 늘어난다
- ③ 분배금이 줄어든다
- ④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4 빈칸을 채우세요

머니마켓 ETF는 이 매우 짧은 자산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자세한 상품정보는 부록(88p) 참고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주식형 ETF 대비
얼마나 변동성이 낮은지, 수익률 차이는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투자상품보다 자금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면
기대수익보다 원금 사용 가능성과 손실 위험을 우선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22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10년 이상 보유할 ETF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DAY-5
Q3
23/30

답변 요약

장기투자를 위해 ETF를 선택할 때에는 분산투자 실현 여부·지수의 지속성·비교적 낮은 비용·안정적인 운용 등이 갖춰졌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투자한다고 해서 특정 ETF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유행보다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투자대상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대표지수 ETF는 여러 기업과 산업에 나누어 투자하고 시장의 구성 변화에 따라 종목이 교체될 수 있어 장기투자의 핵심 후보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테마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는 단기적으로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지만 산업 변화로 장기 수익률은 부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대표지수 ETF를 코어로 설정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테마 ETF를 일부 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인 만큼, 비용도 중요합니다. 매년 차감되는 비용의 작은 차이는 재투자 효과가 장기간 누적되면 최종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만 낮고 기초지수 추적이 불안정하거나 거래가 불편한 상품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기초지수의 지속성, 분산 수준, 운용규모와 과거 운용성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투자는 “매수 후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나 상품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자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리밸런싱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ETF의 4가지 조건



기억하세요!

장기투자는
‘몰어두기’가 아닙니다.



정기점검 + 리밸런싱

시장과 지표, 내 목표의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비중을 조절하세요



[용어 해설]

코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장기간 중심 역할을 하도록 선택한 핵심 자산입니다.

복리효과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해 이후 수익의 기반으로 만드는 효과입니다.

리밸런싱

시장 변화로 달라진 자산 비중을 처음 정한 목표비중에 가깝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1 장기투자의 핵심 후보로 검토되는 ETF 유형은?

- ① 좁은 테마형 ETF ② 여러 기업·산업에 분산된 대표지수형 ETF
③ 레버리지 ETF ④ 인버스 ETF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10년 이상 투자하면 수익이 보장된다 ()
(2) 매년 차감되는 비용의 작은 차이도 장기 누적되면 영향이 커질 수 있다 ()
(3) 장기투자는 매수 후 방치와 같다 ()

3 보수 외에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을 두 가지 이상 쓰세요

정답 : _____ , _____

4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빈칸으로 완성하세요

대표지수 ETF를 자산으로 두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ETF를 일부 편입할 수 있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자세한 상품정보는 부록(88p) 참고

장기투자의 필수품은 대표지수형 ETF 인데요, 대표지수의 장기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왜 대표지수형 ETF를 투자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대표지수형 ETF: **Kodex 200 ETF, Kodex 코스닥150 ETF,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등

오늘의 핵심포인트

장기투자에서는 유행보다 **지속성, 분산과 비용이 중요**합니다.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인지와 **정기적인 점검 규칙**을 함께 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23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매달 현금이 필요하다면 어떤 ETF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요약

꾸준한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매달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ETF를 주목해보시면 됩니다!

매월 생활비나 보조소득이 필요하다면 매월 분배금 지급을 추구하는 월배당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 중 배당주 ETF는 기업 배당, 채권 ETF는 이자, 리츠 ETF는 부동산 임대수익과 분배,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 등을 분배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분배재원이 다르면 시장 환경에 따른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높은 분배율만 보고 하나의 상품에 집중하기보다 분배금 변동 가능성과 자산가격 하락 위험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ETF에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에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고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분배금을 다시 투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월분배 여부보다 세후 분배금, 원금 변화와 총수익률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현금흐름이 필요한지, 이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투자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직접 계획을 세워보고 싶다면, FunETF 홈페이지의 포트래빗 월배당 포트에서 제안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 ✓ 세후 분배금
- ✓ 원금 변화
- ✓ 총수익률

※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 목적의 예시용 자료로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배당 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분배율

일정 기간 지급한 분배금을 ETF 가격이나 기준가격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미래 지급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배재원

ETF가 분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이자·임대수익·옵션 프리미엄 등의 원천입니다.

1 월 현금흐름 목적으로 투자할 때 계획 단계에서 계산해야 하는 것은?

- ① 한 달에 필요한 현금흐름과 그에 필요한 투자원금 ②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 순위
- ③ 지난달 거래량 순위 ④ 운용사 브랜드 인지도

2 ETF 유형과 주요 분배 재원을 연결하세요

- | | | |
|----------|---|---------------|
| 배당주 ETF | • | ㉠ 옵션 프리미엄 |
| 채권 ETF | • | ㉡ 기업 배당 |
| 리츠 ETF | • | ㉢ 이자 |
| 커버드콜 ETF | • | ㉣ 부동산 임대수익 분배 |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2) 분배금 변동 가능성과 자산가격 하락 위험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의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월분배 여부보다 함께 관리해야 할 세 가지를 쓰세요

분배금, 의 변화,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자세한 상품정보는 부록(88p) 참고

각 ETF의 분배주기, 분배율을 확인하고,
월중배당/월말배당 ETF를 찾아 월 2회 현금을 만들어보세요!

- 월중배당: Kodex 200타겟워를리커버드 ETF,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등
- 월말배당: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 등

★ 오늘의 핵심포인트

월분배는 추구하는 지급주기일 뿐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필요한 현금흐름, 분배재원, 세후 총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24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 번에 사는 게 나을까요, 나눠 사는 게 나을까요?

DAY-5
Q5
2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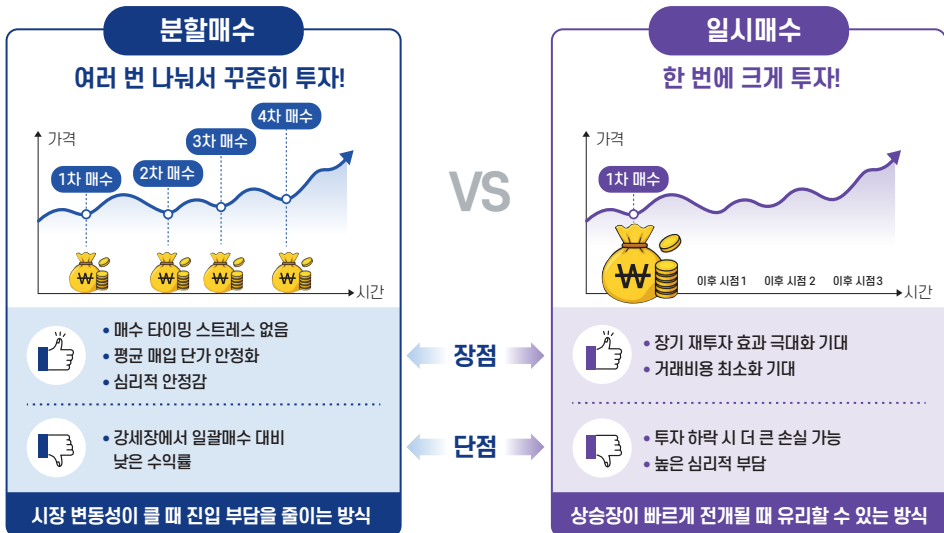
답변 요약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은 시장 노출기간을 늘릴 수 있고, 분할매수 방식은 시점과 심리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과 손실 감내정도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투자할지 나누어 투자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시투자는 자금이 바로 시장에 들어가므로 이후 시장이 상승하면 더 오랜 기간 수익 기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직후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목돈 전체가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할매수는 정해진 기간과 금액으로 나누어 사기 때문에 평균 매수가격을 분산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아직 투자하지 않은 현금의 수익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항상 더 높은 수익을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기간, 손실 감내도와 목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분할매수를 선택한다면 '시장이 떨어지면 더 기다린다'가 아니라 매수기간과 주기, 금액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일시투자를 선택하더라도 비상금과 가까운 시일에 사용할 돈을 제외하고 자산배분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일시투자

투자할 목돈을 한 시점에 시장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분할매수

투자금을 여러 시점에 나누어 매수해 진입가격의 변동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회비용

한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잠재적 이익입니다. 현금 대기 중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한 예입니다.

1 상황별 유리한 투자방식을 연결하세요

지속적인 시장 상승이 기대될 경우

단기 변동성은 높지만, 장기적 상승이 기대될 경우

㉠ 일시투자

㉡ 분할매수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두 방식 중 하나가 항상 더 높은 수익을 낸다 ()

(2) 분할매수는 매수 기간·주기·금액을 미리 정해야 한다 ()

3 투자방식을 고를 때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투자기간

② 손실 감내도

③ 목돈의 성격

④ 오늘의 시장 뉴스 헤드라인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일시투자는 **시장 노출기간**, 분할매수는 **타이밍과 심리 관리**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했다면 중간에 감정으로 규칙을 바꾸지 않도록 계획을 적어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25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5

DAY 6

7

전략 · 세금 · 투자 원칙



-
- Q1** ETF를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서 활용할 때, ETF 활용법이 달라질까요?
 - Q2** ETF 수익에 세금이 발생한다는데, 투자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Q3** 같은 해외지수 투자, 국내상장 ETF와 해외 직투는 무엇이 다를까요?
 - Q4** 레버리지·인버스2x ETF는 일간 수익률 2배인가요, 아니면 투자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의 2배인가요?
 - Q5**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나만의 ETF 투자원칙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

ETF를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서 활용할 때, ETF 활용법이 달라질까요?

DAY-6

Q1

26/30

답변 요약

단기투자에서는 매수/매도 기준이 필요하고, 장기투자에서는 분산투자, 비용, 장기성과 등을 고려하여 ETF 운용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투자원칙을 꼭 세우고 투자하세요.

단기와 장기투자는 단순히 보유기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상품을 고르는 기준과 관리방법도 다릅니다.

장기투자에서는 비교적 낮고 지속 가능한 비용, 지수의 존속 가능성과 분산 수준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지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단기투자에서는 특정 이벤트나 시장 방향을 예상해 테마, 섹터,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틀릴 때 손실을 제한할 손절매 기준도 필요합니다.

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 배수 또는 반대 방향을 목표로 하므로 장기간 누적수익률이 단순히 지수 수익률의 배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논리, 기대기간, 손절·이익실현·리밸런싱 기준을 상품 특성과 나의 투자 시계열에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계열을 고려하여 ETF 투자 전, 단기투자에서는 매수 이유와 목표가격, 손실 제한, 보유 기간을 미리 정하고 장기투자라면 비용과 분산, 리밸런싱 기준도 함께 세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투자

활용하는 ETF 예시

테마
 섹터
 레버리지
 인버스

단기 투자 계획 체크리스트

- ✓ 매수 이유
- ✓ 목표가격
- ✓ 손실 제한
- ✓ 보유 종료일



장기투자

활용하는 ETF 예시

폭넓은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지수 ETF
 (예: KOSPI 200, S&P 500, NASDAQ 100 등)

장기 투자 계획 체크리스트

- ✓ 분산투자 여부
- ✓ 비용
- ✓ 장기 성과
- ✓ 리밸런싱 점검

[용어 해설]

투자 시나리오

어떤 조건에서 수익을 기대하고 언제 판단을 수정할지를 미리 정한 계획입니다.

손절 기준

투자 가격이 틀렸다고 판단해 손실을 확정하고 투자에서 나올 조건입니다.

1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는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같다. ()
 (2) 레버리지 ETF의 장기 누적수익률은 지수 수익률의 정확한 배수가 아닐 수 있다. ()

2 장기투자에서 우선 고려할 조건으로 묶인 것은?

- ① 넓은 대표지수·비교적 낮은 비용·지수의 존속 가능성 ② 높은 목표배수·짧은 보유
 ③ 인기 테마·급등 이력 ④ 일간 수익률·호가 잔량

3 단기투자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것은?

- ① 손실 제한 기준과 보유 기간 ② 연말 배당 일정
 ③ 계좌 이체 한도 ④ 리서치 보고서 구독

4 투자 가정이 틀렸다고 판단해 손실을 확정해야 할 때 필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답 : 기준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자세한 상품정보는 부록(88p) 참고

- 장기 투자 ETF 예시 :

Kodex 200 ETF, Kodex 코스닥150 ETF, Kodex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등

- 단기 투자 ETF 예시(최근 주목받고 있는 시테마 중심) :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Kodex 미국반도체 ETF,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 등

★ 오늘의 핵심포인트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ETF 이름보다 운용 규칙에 있습니다.

기간과 손실관리 기준 없이 ETF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26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세요!

완료
 체크

ETF 수익에 세금이 발생한다는데, 투자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요약

큰 틀에서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매매차익, 분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TF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일반계좌 투자자를 기준으로 국내주식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채권·원자재 등 기타 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되며 연간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후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수에 투자해도 상장 지역과 투자계좌에 따라 분배금, 매매차익, 손익통산 방식이 달라 세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ETF 과세표

ETF 유형	금융소득	일반계좌 투자 시	연금계좌 투자 시
국내주식형*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세 $\text{MIN}(\text{분배금}, \text{과표증분}) \times 15.4\%$	
그 외 (해외주식, 파생, 채권, TR, 액티브형 등)	매매차익	보유기간과세 $\text{MIN}(\text{매매차익}, \text{과표증분}) \times 15.4\%$	
	분배금	배당소득세 $\text{MIN}(\text{분배금}, \text{과표증분}) \times 15.4\%$	



확인!

* 국내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 해외주식 배당 재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과표기준가격

국내 펀드와 일부 ETF의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로 산출하는 기준가격입니다.

손익통산

정해진 범위에서 투자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길 손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보유기간 과세·원천징수

보유 중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을 계산하고,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 유형과 매매차익 과세 방식을 연결하세요(일반계좌 개인 기준)

국내주식형 ETF

국내상장 기타 ETF

해외상장 ETF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보유기간 과세)

㉡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 양도소득(손익통산·기본공제 후 신고)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모든 ETF는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

(2)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

3 국내상장 기타 ETF의 매매차익 과세 기준은?

- ①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큰 금액
- ②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
- ③ 항상 실제 매매차익
- ④ 항상 분배금 합계

4 빈칸을 채우세요

같은 지수에 투자해도 과 에 따라

분배금·매매차익·손익통산 방식이 달라 세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같은 세전수익률도 상장지역과 자산유형에 따라 세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과세내용](#)과 [최신 세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27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같은 해외지수 투자, 국내상장 ETF와 해외 직투는 무엇이 다를까요?

답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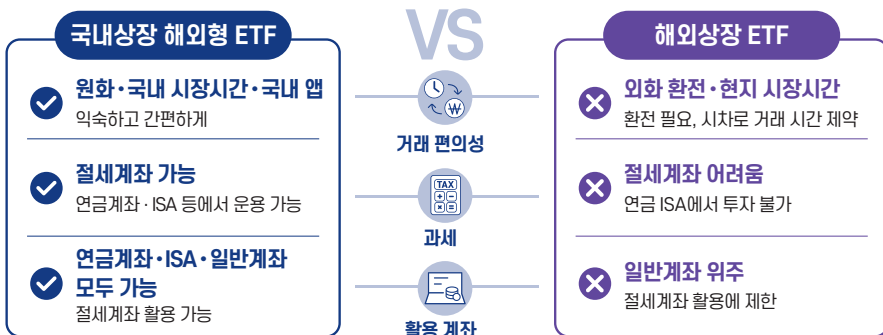
국내상장 해외형 ETF와 해외상장 ETF 투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거래 편의성, 과세, 활용가능 계좌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원화로 사거나(예시 : Kodex 미국S&P500 ETF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달러로 직접 살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ETF는 국내 주식시장 시간에 원화로 거래하고 국내 증권 앱에서 접근하기 편리합니다. 해외상장 ETF는 현지 시장시간에 거래하며 환전이 필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도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의 매매차익은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체계에서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후 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계좌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형 ETF의 경우, 증권사 일반계좌뿐만 아니라 절세계좌(연금계좌, ISA계좌 등)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상장 ETF의 경우 절세계좌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상장 해외형 ETF와 해외상장 ETF 중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편의성, 과세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절세계좌에서 해외형 ETF를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상장 해외형 ETF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의 일부 이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금액은 최신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수익률

세금과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투자자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률입니다.

1 경로와 특징을 연결하세요

국내상장 해외 ETF

해외상장 ETF(직투)

㉠ 외화 거래, 양도소득세 직접 신고 등

㉡ 원화 거래·국내 시간·앱 접근 편리

2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국내상장 해외형 ETF는 거래를 위해 환전이 필요하다 ()

(2) 절세계좌에서 해외형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상장 해외형 ETF를 활용해야 한다 ()

3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에 적용될 수 있는 과세 체계는?

- ① 배당소득 원천징수로 종결
- ② 해외주식 양도소득 — 연간 손익통산·기본공제 후 신고
- ③ 비과세
- ④ 부가가치세

4 절세계좌(연금계좌·ISA 등)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 ① 국내상장 해외형 ETF
- ②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 ③ 국내주식형 ETF
- ④ 국내상장 채권형 ETF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ETF로 적용해보기

자세한 상품정보는 부록(88p) 참고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할 때, **Kodex 미국S&P500 ETF**를 매수하는 경우 거래 편의성, 과세, 활용계좌 측면에서 미국에 상장된 S&P500 지수 추종 ETF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HTS/MTS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투자 대상이 같아도 투자 경로가 다르면 **비용, 세금, 관리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금액과 신고 상황을 반영해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28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레버리지·인버스2X ETF는 일간 수익률 2배인가요, 아니면 투자기간 전체의 누적 수익률의 2배인가요?

DAY-6

Q4

29/30

답변 요약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2X는 목표로 하는 “일간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질수록 누적성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수로, 인버스·인버스2X ETF는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하루 1% 오를 때 비용 차감 전 약 2% 상승을 추구합니다.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2X ETF는 일반적으로 목표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선물이나 스왑 등 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뿐 아니라 금리, 수급, 만기 등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현물지수와 같은 방향·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현물과 선물 가격 움직임의 차이로 인해 정확하게 목표수익률을 추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다가온 선물을 다음 만기의 계약으로 바꾸는 롤오버 과정에서 두 계약의 가격 차이와 거래비용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2X ETF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 수익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일 기준 금액과 투자비중을 다시 맞추기 때문에 여러 날의 누적수익률은 같은 기간 지수 수익률의 정확한 배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락이 반복되면 변동성으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음의 복리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향을 맞혔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별 투자설명서에서 사용하는 파생상품과 롤오버 방식, 일간 목표배수를 확인하고 보유기간과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간단한 예시(수수료 기타 비용 제외)

시점	시작(t0)	1일차(t1)	2일차(t2)	누적 수익률(t0→t2)
1배 ETF	100	+10% 110 (+10%)	-10% 99 (-10%)	-1% (99/100-1)
레버리지 ETF (일간 수익률 2배)	100	+20% 120 (+20%)	-20% 96 (-20%)	-4% (96/100-1)

결과가 다릅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인데
레버리지는
더 낮아졌습니다.



주의!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간 수익률’ 기반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변동성 손실’이 누적되어 장기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단기 트레이딩·전술적 활용에 유의하세요.

[용어 해설]

음의 복리효과

하루 수익률의 배수나 반대 방향을 추구하지만, 등락이 반복되면 누적성고가 단순 배수 계산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주식·지수·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선물·옵션·스왑 등의 금융계약입니다.

롤오버

만기가 가까운 선물계약을 정리하고 다음 만기의 선물로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두 계약의 가격 차이와 비용이 ETF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지수가 100 → 110(+10%) → 99(-10%)로 움직였습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1배 ETF 누적수익률 : _____ %

레버리지 ETF 누적 수익률 : 100 → _____ → _____ (누적 _____ %)

2 위처럼 등락 반복으로 배수 추종 상품의 가치가 잠식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정답 : 음의

3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1) 방향만 맞으면 레버리지 수익이 보장된다 ()

(2)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2X의 목표는 '하루' 수익률 기준이다 ()

4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2X 투자 전 확인·결정할 것으로 묶인 것은?

① 일간 목표배수·파생상품과 롤오버 방식·보유기간·손실 한도

② 배당 일정·분배락 날짜

③ 신탁보수·보험 비용

④ 공모주 일정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레버리지·인버스·인버스2X는 일간 목표수익률 상품입니다. 방향뿐 아니라 보유기간과 변동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29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보세요!

완료
체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나만의 ETF 투자원칙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DAY-6
Q5
30/30

답변 요약

투자 원칙에는 목표·기간·감내손실·자산배분·매수·점검·리밸런싱·매도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ETF 투자 원칙은 '좋은 상품을 고르는 법'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먼저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금액과 투자기간을 설정합니다. 은퇴자금인지 주택자금인지에 따라 필요한 수익과 감당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10% 또는 20% 하락했을 때 유지할 수 없는 비중이라면 처음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은 주식·채권·현금성 자산처럼 역할이 다른 자산의 목표비중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ETF 수를 늘리는 것보다 다양한 자산군의 ETF를 편입하여 분산 투자 효과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매수주기, 추가매수 조건, 점검일과 리밸런싱 기준을 정합니다. 매도는 공포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목표달성 여부, 상품구조 변화, 비중초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일관적인 투자원칙이 필요합니다. 투자원칙은 완벽한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1 투자목표·금액

- 투자 목표
- 목표 금액 원
- 월 투자 금액 원

2 투자기간

- 총 투자 기간 년
- 목표 시점

3 감내 가능 손실

- 최대 감내 손실 %
- 손실 금액 기준 원

4 자산배분 비중

자산(ETF)	비중(%)
합계	100%

5 매수 주기

- 매수 주기
☐ 매일 ☐ 매월 ☐ 기타 ()
- 매수 요일/일
- 매수 방식
☐ 고정금액 ☐ 고정수량 ☐ 기타 ()

6 추가매수 조건

- 추가매수 기준
- 추가매수 한도 원
또는 %

7 점검일·리밸런싱

- 정기 점검일
- 리밸런싱 주기
☐ 분기 ☐ 반기 ☐ 연1회 ☐ 기타 ()
- 리밸런싱 기준

8 매도 기준

- 매도 기준(해당 시 매도 결정)
- ☐ 목표 달성
 ☐ 구조 변경
 ☐ 논리 훼손
 ☐ 비중 초과
- 기타 매도 기준



TIP!

시장과 내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원칙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유연하게 개선하세요.

[용어 해설]

손실 감내도

투자자가 재정적·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손실의 범위입니다.

자산배분

투자목적이 다른 여러 자산에 목표비중을 정해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리밸런싱

변한 자산비중을 목표비중에 가깝게 다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1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 ① 매수할 종목 이름
- ② 투자목표 — 투자금액과 투자기간
- ③ 증권사 이벤트
- ④ 시장 전망

2 원칙의 구성요소와 내용을 연결하세요

손실 감내도

자산배분

리밸런싱

- ㉠ 역할이 다른 자산의 목표비중 정하기
- ㉡ 하락 시 유지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치(범위)
- ㉢ 목표비중에서 벗어나면 되돌리는 기준

3 매도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표 달성
- ② 투자 논리 훼손
- ③ 상품구조 변경·비중 초과
- ④ 하락에 대한 공포

4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 (1) 원칙은 완벽한 예측을 위한 장치다 ()
- (2) 원칙은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

※ 실습문항 정답은 99p에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핵심포인트

투자 원칙은 시장을 맞히는 공식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기 위한 약속입니다.
목표·비중·매수·점검·매도 기준을 미리 적어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Q30의 실습을 완료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해 보세요!

완료
 체크

6

DAY

7

최종 점검-나의 ETF 투자 준비



- 01**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10가지 질문
- * 체크리스트 10
 - * 나의 투자 원칙 서식

- 02** ETF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용어 15
- * 핵심용어 15
 - * 핵심용어 셀프 테스트
-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10가지 질문

최종 점검

6일 동안 배운 내용을 실제 투자 직전의 확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체크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해당 Day로 돌아가 다시 확인한 뒤에 주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No.	확인 질문	확인 방법	체크
1	투자 목적과 사용 시점을 정했는가?	목표 금액·기간·ETF를 선택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는다	☐
2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인가?	비상자금과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을 제외했는지 확인한다	☐
3	실제 투자대상과 기초지수를 아는가?	투자 지역·자산·지수 방법론을 확인한다	☐
4	구성종목의 집중과 중복을 확인했는가?	상위종목 비중과 기존 ETF의 공통 종목을 비교한다	☐
5	상품명 속 구조를 이해하는가?	H·선물·합성·액티브·커버드콜·레버리지 표기를 확인한다	☐
6	전체 비용을 확인했는가?	총보수·TER·실부담비용·수수료·스프레드를 살펴본다	☐
7	주문가격이 적정한가?	iNAV·과리울·호가 잔량을 확인하고 지정가를 고려한다	☐
8	분배금의 재원과 세금을 아는가?	분배율보다 총수익률과 세후 현금흐름을 확인한다	☐
9	매수 후 관리기준이 있는가?	점검일·리밸런싱·추가매수·매도 조건을 정한다	☐
10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했는가?	투자설명서·월간보고서·운용사 공지·거래소 공시를 확인한다	☐

★ 체크리스트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주문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

최종 점검

Q1~Q30의 실습 답안을 아래 여섯 칸으로 옮겨 적으면, 흩어져 있던 30개의 답이 한 장의 「나의 투자 원칙」으로 완성됩니다. 매년 같은 달에 꺼내 고쳐 쓰세요.

1 목표와 기간

_____ 원을 _____ 년 _____ 월까지

이 돈의 용도 : _____

2 손실 감내도

_____ 원(약 - _____ %)까지는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3 자산배분

주식형 _____ % · 채권형 _____ %

기타 _____ % · 현금 _____ %

4 보유 상품(3~5개)

1. _____ 2. _____

3. _____ 중복 확인 ☐

5 적립·점검 규칙

매월 _____ 일 _____ 원 매수

매년 _____ 월 비중 점검·리밸런싱

6 매도 기준

☐ 목표 도달 ☐ 자금 필요

☐ 처음 산 이유 소멸 기타 : _____

작성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다시 읽을 날 : _____ 년 _____ 월 서명 : _____

★ 오늘의 핵심포인트

원칙은 정교해서가 아니라 지켜져서 힘이 생깁니다.

한 장으로 적어 두고, 시장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 읽으세요.

일주일 챌린지 완주까지 한 장 남았습니다!
다음 장의 핵심용어15로
마지막 점검을 해보세요.

완료
체크

ETF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용어 15

최종 점검

일주일 동안 만난 용어 가운데, 실제 상품을 고르고 주문할 때 다시 마주치는 15개만 추렸습니다.

No.	용어	쉬운 뜻
1	ETF	여러 자산을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만든 상품
2	기초지수	ETF가 성과를 따라가거나 비교 기준으로 삼는 지수
3	NAV·iNAV	NAV는 한 주당 순자산가치, iNAV는 장중 가격을 반영한 추정 순자산가치
4	과리율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5	추적오차	ETF 기준가격 수익률이 목표지수 수익률과 얼마나 다르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6	LP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해 ETF 거래와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유동성공급자
7	호가스프레드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사이의 가격 차이
8	총보수·TER	총보수는 운용사, AP사, 신탁회사, 사무관리회사에 지급되는 보수의 합. TER는 총보수에 실제 기타비용 등을 반영한 지표
9	분배금·분배락	분배금은 ETF가 지급하는 현금, 분배락은 지급 권리 확정 뒤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현상
10	환헤지(H)	환율 변화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
11	패시브·액티브 ETF	패시브는 지수 추종, 액티브는 운용 판단을 활용해 비교지수와 다른 성과를 추구하는 ETF
12	듀레이션	금리 변화에 채권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가늠하는 지표
13	커버드콜 전략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전략
14	레버리지·인버스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일정 배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
15	리밸런싱	구성종목이나 자산비중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과정

최종 점검

뜻을 읽고 용어를 직접 적어보세요. 8개 중 6개 이상 맞히면 챌린지 완주입니다!

- | | |
|---|----------|
| <p>1 ETF 기준가격 수익률이 목표지수 수익률과 얼마나 다르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p> | 용어 _____ |
| <p>2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사이의 가격 차이</p> | 용어 _____ |
| <p>3 총보수는 기본 운용보수, TER는 총보수에 실제 기타비용 등을 반영한 총비용 지표</p> | 용어 _____ |
| <p>4 환율 변화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p> | 용어 _____ |
| <p>5 금리 변화에 채권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가능하는 지표</p> | 용어 _____ |
| <p>6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전략</p> | 용어 _____ |
| <p>7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일정 배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TF</p> | 용어 _____ |
| <p>8 구성종목이나 자산비중을 정해진 기준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과정</p> | 용어 _____ |

★ 오늘의 핵심포인트

축하합니다!

이제 상품명·비용·구조·세금을 스스로 확인하고

나의 원칙으로 판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챌린지를 완주했다면 완료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나의 투자 원칙 한 장을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완료
체크

부록

핵심 Kodex ETF 개요



01

대표지수 ETF

- 069500 Kodex 200 ETF
- 229200 Kodex 코스닥150 ETF
- 379800 Kodex 미국S&P500 ETF
- 379810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02

커버드콜 ETF

- 498400 Kodex 200타겟워클리커버드콜 ETF
- 0219E0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 494300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
- 44164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03

AI 병목 테마 ETF

- 395160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 390390 Kodex 미국반도체 ETF
- 0225V0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
- 487240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 487230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
- 0173Y0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

04

초단기 채권 ETF

- 488770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대표지수 ETF

Kodex 200 ETF

-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으로 구성
- 코스피 상승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200개에 투자하여 국내 증시 전반에 투자 가능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069500		
기초지수	KOSPI 200 지수		
투자기업수	200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25조 333억원	상장일	2002.10.14
보수(연)	합성총보수 0.1615% (집합투자 0.124%, AP 0.001%, 신탁 0.01%, 일반사무 0.015%, 기타비용 0.0115%)		

※ 증권거래비용 0.0283%(직전 회계연도 기준)

Kodex 코스닥150 ETF

-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시가총액/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 IT,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보유한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229200		
기초지수	코스닥 150 지수		
투자기업수	150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5조 55억원	상장일	2015.10.01
보수(연)	합성총보수 0.2825% (집합투자 0.20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325%)		

※ 증권거래비용 0.0401%(직전 회계연도 기준)

※ 자료 : 삼성자산운용, 2026.08.31 기준 ※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dex 미국S&P500 ETF

-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 500여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 지수
- 특정 섹터에 쏠려있지 않고, 다양한 섹터에 잘 분산된 것이 특징이자 장점
- 나스닥100 지수(기술주 중심) 대비, S&P500 지수는 성장과 분산투자를 동시에 추구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379800		
기초지수	S&P 500 Index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투자기업수	500여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10조 803억원	상장일	2021.04.09
보수(연)	합성총보수 0.0738% (집합투자 0.0001%, AP 0.001%, 신탁 0.005%, 일반사무 0.0001%, 기타비용 0.0676%)		

※ 증권거래비용 0.0345%(직전 회계연도 기준)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 혁신을 주도(모바일→플랫폼→AI)하는 다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S&P500 지수 대비 높은 비중으로 투자
- IT 섹터 중심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는 미국 대표지수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379810		
기초지수	NASDAQ 100 Index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투자기업수	100여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9조 1,633억원	상장일	2021.04.09
보수(연)	합성총보수 0.1003% (집합투자 0.0001%, AP 0.001%, 신탁 0.005%, 일반사무 0.0001%, 기타비용 0.0941%)		

※ 증권거래비용 0.0558%(직전 회계연도 기준)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 코스피200 흐름에 상당 부분 참여+타겟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하는 월중배당 ETF
- 타겟 커버드콜 전략으로 목표한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여 분배 재원으로 활용 기대
-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로 '코스피 200+월배당+프리미엄 수익 비과세' 투자 패키지 기대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498400		
투자기업수	200여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5조 7,374억원	상장일	2024.12.03
보수(연)	합성총보수 0.4228% (집합투자 0.35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0328%)		

※ 증권거래비용 0.1015% (직전 회계연도 기준)

※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세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

- 한국 대형주 중, 주도산업의 비중을 추가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
- 한국 증시 전반에 투자하며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와 함께 활용 시 월 2회 현금흐름 추구 가능
- 탄력적 커버드콜 전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절세효과(옵션 프리미엄 비과세)까지 기대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0219E0		
투자기업수	100여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8,350억원	상장일	2026.07.14
보수(연)	총보수 0.50% (집합투자 0.46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1%)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세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삼성자산운용, 2026.08.31 기준 ※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ETF

- 잔존만기 1일 & 외가격 (OTM, Out of the Money) 포지션의 나스닥100 콜옵션 매도
- 그 결과, 외가격까지의 시장흐름참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옵션 프리미엄까지 수취 추구
- 미국 뉴욕현지법인을 통해 시차없이 당일 콜옵션 매매 결정으로 정확성 제고 기대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494300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기초지수	NASDAQ -100 Daily Covered Call 101 Index(Total Return)		
투자기업수	100여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1조 21억원	상장일	2024.10.22
보수(연)	합성총보수 0.352% (집합투자 0.21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102%)		

※ 증권거래비용 0.149%(직전 회계연도 기준)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 수익률 제고와 적절한 분배율 모두 추구하는 Kodex 대표 월중배당 ETF
- 미국 배당성장주를 중심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한(기술주 포함) 배당성장 포트폴리오(Goldman Sachs, Microsoft 등)
- 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개별종목 옵션 매도 실시로 기계적인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대비 탄력적 시장 대응 가능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441640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비교지수	S&P 500 Index PR	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투자기업수	40여개	상장일	2022.09.27
순자산총액	1조 6,914억원		
보수(연)	합성총보수 0.2601% (집합투자 0.169%, AP 0.001%, 신탁 0.01%,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0701%)		

※ 증권거래비용 0.1774%(직전 회계연도 기준)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I 병목 테마 ETF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 AI반도체 TOP2(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50% 집중 + SK스퀘어, 삼성전기 포함 소재·부품·장비 등에 50% 투자* (*기준일 : '26.08.31, 구성 종목 및 비중 향후 변동 가능)
- TOP2 기업의 성장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업 낙수효과까지 기대하며 AI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395160		
기초지수	FnGuide AI반도체 TOP2+ 지수		
투자기업수	15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4조 33억원	상장일	2021.07.30
보수(연)	합성총보수 0.5084% (집합투자 0.40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584%)		

※ 증권거래비용 0.0878%(직전 회계연도 기준)

Kodex 미국반도체 ETF

- 미국 대형 반도체(팹리스, 파운드리 등) 25개 기업에 투자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
- 선도기업을 20%까지 편입함에 따라, 주도주·대형주를 더 높은 비중으로 편입 가능
- 비교적 합리적인 총보수(0.09%)로 장기 투자에서도 적합한 ETF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390390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기초지수	MVIS US Listed Semiconductor 25 Index		
투자기업수	25개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1조 2,153억원	상장일	2021.06.30
보수(연)	합성총보수 0.1713% (집합투자 0.064%, AP 0.001%, 신탁 0.015%,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0813%)		

※ 증권거래비용 0.0907%(직전 회계연도 기준)

※ 자료 : 삼성자산운용, 2026.08.31 기준 ※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ETF

- 학습에서 실행으로, AI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CPU는 과거 대비 핵심 반도체 자산으로 주목
- AI 에이전트의 작업 완료를 위해, 대부분의 리소스가 CPU로 집중되며, 빅테크 기업들도 고성능 CPU 확보 경쟁 본격화
- CPU 선두주자인 Intel, ARM, AMD에 약 75% 집중하여 선두 기업의 수혜 기대*
(*기준일 : '26.08.31, 구성 종목 및 비중 향후 변동 가능)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0225V0	한해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기초지수	Indxx US CPU Semiconductor TOP 10 Index(Price Return)		
투자기업수	10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670억원	상장일	2026.08.04
보수(연)	총보수 0.55% (집합투자 0.51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1%)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 교체 사이클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핵심 변압기, 케이블 기업에 투자하는 ETF
- 효성중공업, LS그룹, HD현대일렉트릭에 약 76% 수준 집중 투자*
(*기준일 : '26.08.31, 구성 종목 및 비중 향후 변동 가능)
- 글로벌 노후화된 전력망, AI 시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전력기기 기업에 집중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487240		
기초지수	iSelect AI전력핵심설비 지수(Price Return)		
투자기업수	12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3조 2,056억원	상장일	2024.07.09
보수(연)	합성총보수 0.4586% (집합투자 0.35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0686%)		

※ 증권거래비용 0.0713%(직전 회계연도 기준)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I 병목 테마 ETF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

- AI 시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력과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건설의 중심인 미국 내 전력 탐티어 기업 10개 편입
- 전력발전에서 송배전, 전력효율화까지 전력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전력 밸류체인 전반 투자
- 전력인프라는 정부의 지원과 빅테크 파트너십까지 체결되며 중장기적 성장 전망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487230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기초지수	iSelect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지수 (Price Return)		
투자기업수	10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1조 3,861억원	상장일	2024.07.09
보수(연)	합성총보수 0.5315% (집합투자 0.419%, AP 0.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1%, 기타비용 0.0815%)		

※ 증권거래비용 0.3685%(직전 회계연도 기준)

Kodex 미국AI광통신네트워크 ETF

- 반도체 칩 성능과 AI 서버 고도화로 구리선 기반 네트워킹은 속도 및 효율성에서 한계 직면
 - AI 병목 해결의 축으로 광(光) 네트워킹 주목 : 구리선 대비 ①전송속도 ↑, ②대역폭 ↑, ③지연시간 ↓ 등 가능
 - Lumentum, Coherent, Ciena 등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기준일 : ‘26.08.31, 구성 종목 및 비중 향후 변동 가능)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0173Y0	환헤지 여부	미실시(환율변동에 노출)
기초지수	Akros 미국 AI광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지수 (Price Return)		
투자기업수	10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순자산총액	3,782억원	상장일	2026.03.31
보수(연)	총보수 0.55% (집합투자 0.529%, AP 0.001%, 신탁 0.01%, 일반사무 0.01%)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자료 : 삼성자산운용, 2026.08.31 기준 ※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

- 가입금액 제한 없고, 기간 조건 없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현금관리 솔루션
- 초단기 ETF로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두루 추구하는 ‘투자 대기성 자금 보관처’로 매력 부각
- 비교적 짧은 듀레이션으로 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 가능

상품 정보 (‘26.08.31 기준)

종목코드	488770		
비교지수	KAP MMF 지수(TR)		
투자기업수	600여개	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순자산총액	8조 2,436억원	상장일	2024. 08. 06
보수(연)	합성총보수 0.063% (집합투자 0.039%, AP 0.001%, 신탁 0.005%, 일반사무 0.005%, 기타비용 0.013%)		

※ 증권거래비용 0.0013%(직전 회계연도 기준)

※ 구성 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TF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ETF 관련 채널 소개

ETF 투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소개해 드립니다.

FUN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FUN
ETF**

QR코드 스캔하기!

국내, 해외 상장 ETF에 대한
핵심 정보뿐만 아니라
각 ETF별 비교까지 한 번에 가능

쉬운 투자를 위한 출발지,
강남역 8번출구



QR코드 스캔하기!

돈이 모이는 1%의 시각,
쉬운 투자를 위한 출발지

DAY-1 실습문항

- Q1 1. ㉔ 2. 상장지수펀드 3. (1) O (2) X 4. Exchange - ㉔ / Traded - ㉔ / Fund - ㉔
- Q2 1. 운용사 브랜드 / 투자 지역 / 기초지수 2. ㉔ 3. 액티브 - ㉔ / 선물 - ㉔ / 합성 - ㉔ 4. (1) X (2) O
- Q3 1. 09:00 ~ 15:30 2. ㉔ 3. (1) X (2) O 4. LP(유동성공급자)
- Q4 1. (1) X (2) O 2. 1주 3. ㉔ 4. 직접, 은행·보험사, 신탁
- Q5 1. 주식형 - ㉔ / 채권형 - ㉔ / 원자재형 - ㉔ / 통화형 - ㉔ 2. ㉔ 3. (1) X (2) X 4. 혼합형

DAY-2 실습문항

- Q1 1. iNAV 2. 3% / 고평가 3. (1) O (2) X 4. ㉔
- Q2 1. ㉔ 2. 기타비용 / 매매중개수수료 3. (1) O (2) X 4. ㉔
- Q3 1. 분배금 2. 분배락 3. (1) X (2) X (3) O 4. ㉔
- Q4 1. ㉔ 2. (1) X (2) O (3) O 3. 순자산 규모, 거래량 (공사·운용사 안내) 4. ㉔
- Q5 1. ㉔ 2. 순자산·거래량·스프레드 - ㉔ / 총보수·실부담비용 - ㉔ / 괴리율·추적오차 - ㉔ 3. (1) X (2) O 4. 추적오차

DAY-3 실습문항

- Q1 1. 방법론 2. (1) X (2) O 3. ㉔ 4. ㉔
- Q2 1. 정기변경 2. ㉔ 3. (1) X (2) O 4. (1) X (2) O
- Q3 1. (1) X (2) O 2. ㉔ 3. 합산(집중) 4. ㉔
- Q4 1. 패시브 - ㉔ / 액티브 - ㉔ 2. (1) X (2) O 3. ㉔
- Q5 1. (1) X (2) O 2. 둘 다 약 10% 3. ㉔ 4. 운용성과·운용보수·추적오차·괴리율·거래량 중 2가지

DAY-4 실습문항

- Q1 1. 월분배형 - ㉔ / TR형 - ㉔ 2. (1) X (2) O 3. ㉔ 4. 월배당(월분배) / 총수익률
- Q2 1. 콜옵션 2. 프리미엄 3. (1) X (2) O (3) X 4. 타겟 - ㉔ / 고정 - ㉔ / 액티브 - ㉔
- Q3 1. 듀레이션 2. ㉔ 3. (1) X (2) O 4. ㉔
- Q4 1. (H) - ㉔ / 선물 - ㉔ / 합성 - ㉔ 2. (1) X (2) O 3. 롤오버 4. ㉔
- Q5 1. ㉔ 2. (1) O (2) X 3. ㉔ 4. 순자산 규모·거래량·스프레드·괴리율 중 2가지

DAY-5 실습문항

- Q1 1. (1) O (2) X 2. ㉔ 3. 사는지 / 보유할지 / 손실
- Q2 1. ㉔ 2. (1) X (2) O 3. ㉔ 4. 듀레이션
- Q3 1. ㉔ 2. (1) X (2) O (3) X 3. 기초지수의 지속성·분산 수준·운용규모·과거 운용성과 중 2가지 4. 코어 / 테마
- Q4 1. ㉔ 2. 배당주 - ㉔ / 채권 - ㉔ / 리츠 - ㉔ / 커버드콜 - ㉔ 3. (1) X (2) O 4. 세후 / 원금 / 총수익률
- Q5 1. 지속 상승 - ㉔ / 단기 변동성 높을 때 - ㉔ 2. (1) X (2) O 3. ㉔

DAY-6 실습문항

- Q1 1. (1) X (2) O 2. ㉔ 3. ㉔ 4. 손절
- Q2 1. 국내주식형 - ㉔ / 국내상장 기타 - ㉔ / 해외상장 - ㉔ 2. (1) X (2) O 3. ㉔ 4. 상장 지역 / 투자계좌
- Q3 1. 국내상장 - ㉔ / 해외상장 - ㉔ 2. (1) X (2) O 3. ㉔ 4. ㉔
- Q4 1. -1% / 120 → 96 (누적 -4%) 2. 복리효과 3. (1) X (2) O 4. ㉔
- Q5 1. ㉔ 2. 손실 감내도 - ㉔ / 자산배분 - ㉔ / 리밸런싱 - ㉔ 3. ㉔ 4. (1) X (2) O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과세율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MEMO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DAY
06

DAY
07

MEMO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DAY
06

DAY
07





“ETF 투자,
이제는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접근할 때다.”